

#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12

2021 December  
Vol.547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12

# Contents

2021 December  
Vol.547

## 달다가 시선이

## 펼치다 일상을

## 품다 세상을

## 오다 소식이



### COVER STORY

교정공무원은 관심과 포용의 자세로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교정위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교정의 참된 모습을 그려갑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 ZOOM IN** 04  
충주구치소

**생각의 방향** 10  
마음의 추위를 안아 주는  
관심과 포용의 미학

**지금, 이 사람** 12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

**별별 알고리즘** 16  
우리 마음에 필요한  
포용의 아름다움



**부캐를 부탁해** 18  
온 가족의 2021 피날레,  
싱그러운 낭만을 누리다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한용훈

**선배에게 듣다** 22  
충주구치소 교감 박종덕

**교정인 원픽** 26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충주구치소의 주인공입니다!

**힐링 메신저** 30  
칭아한 호수, 물길에 의지하다  
충주

**지구 초대석** 34  
내일은 비닐봉지 없는 날

**물음의 소통** 36  
직장인이 느끼는 세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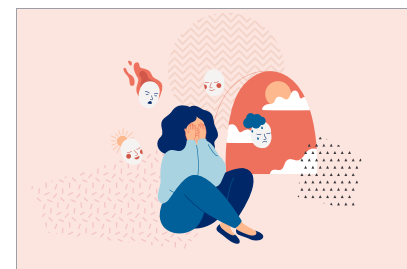
**관계 반창고** 38  
관심과 포용이 필요한 시간

**알쓸꿀잡** 40  
겨울철 난방비 절약 편

**머니 레시피** 42  
대출 규제 강화 속  
대출 잘 받는 방법은?

**인문학 살롱** 44  
코로나 시대의 극장  
그리고 영화

**오늘의 건강** 46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부위,  
무릎 건강 이야기



**대나무숲 일기 1** 48  
의무관 10년의 특별한 경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진료하다

**대나무숲 일기 2** 50  
저의 진심 어린 반성이  
피해자분들께 달기를 기원합니다

**교정 리포트** 52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②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무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12월호 Vol.547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http://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http://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포용과 공감으로 수용자를 보듬는 공간 충주구치소

충주구치소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 민원인의 심신 안정을 위해 민원실에 작가의 그림을 전시하고, 가족 만남의 집 등을 운영해 포용적 교정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념과 병역이 조화로운 대체복무 실현

충주구치소는 쾌적한 대체복무 환경을 조성해 대체복무요원의 성실한 병역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으로 구현한 복무 시스템 아래 대체복무요원들이 공익 업무를 분야별로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으로 교정사고 및 감염병 예방

충주구치소는 철저한 보안 근무를 수행하고 수용자와 라포르 형성을 위한 수시 상담 및 교도 작업을 실시해 교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마음의 추위를 안아 주는

## 관심과 포용의 미학

김용국 시인은 '아무도 그 숲에 가지 않았지만'이라는 시에서 더불어 사는 숲속의 나무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작은 나무는 더 작은 나무를 더 작은 나무는 더 더 작은 나무를 사랑했으며 힘 약한 나무와 힘 센 나무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힘을 뽐내지도 않았고 오직 힘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었지만 불행하지 않았고 큰 나무 위에 더 큰 나무가 있었지만 더 행복하지도 않았다."

큰 나무 작은 나무, 힘센 나무 약한 나무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 이 숲에서는 누구 하나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런 나무들 같다면 어떨까요? 많이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지 않고,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지 않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넓은 품으로 이해해 주기. 이렇게 넉넉한 마음들은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다시 살게도 하죠.

1830년대 러시아에서 하급 관리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당시 다른 사람들처럼 사냥총 하나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아껴서 돈을 모은 남자는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들여서 산 총을 그만 실수로 물속에 빠뜨립니다. 상심이 얼마나 컸던지, 남자는 병에 걸리고 마는데요. 이런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새것으로 선물을 해 줍니다.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힘을 내서 남자는 건강을 되찾게 되죠. 러시아 작가 고골은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외투>라는 소설을 씁니다. 소설 <외투>의 주인공은 관청의 가장 말단 직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서류를 손으로 깨끗하게 베껴 쓰는 일입니다. 하는 일로 보나 직위로 보나 존재감이 없는 그는 특하면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곤 합니다. 수십 번은 더 수선해 입은 외투도 놀림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외투마저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는 기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자는 큰맘 먹고 새 외투를 장만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최대한 아끼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는데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매야 합니다. 저녁을 굶는 것은 기본, 추위에도 난방은 사치, 밤에는 불도 켜지 않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면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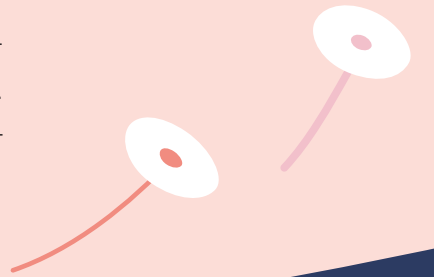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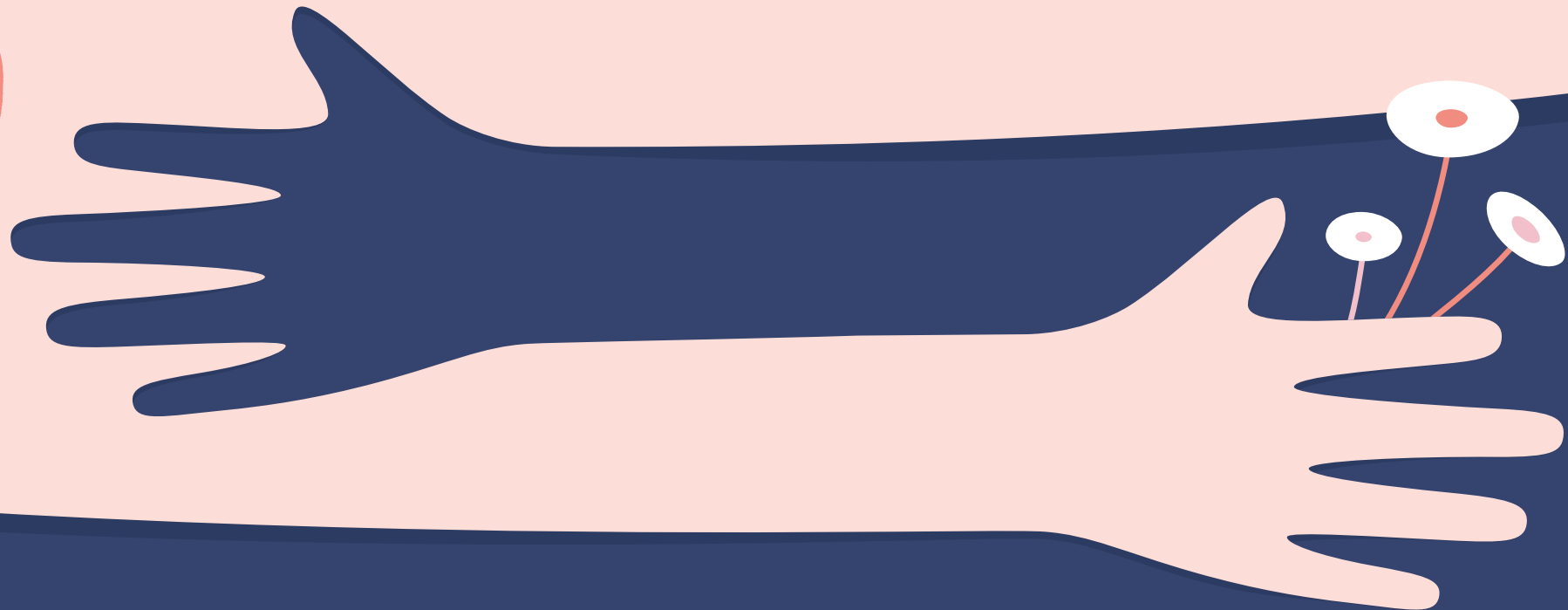
뒤축이 닳을까 봐 조심조심 걸을 정도죠.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 끝에 남자는 드디어 새 외투를 장만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온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새 외투 덕분에 동료들에게 관심도 받고 저녁 초대까지 받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서 외투를 빼앗기고 말거든요. 얼마나 고생해서 마련한 외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남자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러 경찰서에도 찾아가고 상사에게도 가 보지만, 누구 하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깟 외투 하나 때문에 귀한 시간을 빼앗았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들에게는 하찮은 외투였겠지만 남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남자는 병을 얻게 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소설의 모티브가 된 관리와 소설 속 주인공의 마지막이 달랐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위안을 받았던 관리와 달리, 남자의 아픔에는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죠. 남자의 호소에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겨울 추위를 막아 줄 외투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추위를 감싸 안아 줄 관심과 이해해 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경계를 두지 않고 무엇이든 감싸 안아 주어 '포용의 미학'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전통 보자기입니다. 보자기는 밥상을 덮으면 밥상보가 되고, 이불을 싸면 이불보가 됩니다. 머리에 쓸 수도 어깨에 두를 수도 짐을 싸거나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의 물건이 됐든 그것에 맞춰서 감싸 안아 줍니다. 푸근하고 부드럽고 넉넉하게, 우리 마음에도 이런 포용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병철 시인은 '안기기, 안아주기'라는 시에서 "포용이란 포용"이라고 말합니다. 포용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안아 주는 것이죠.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 편에 서 주고, 힘이 돼 주는 일입니다.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은 저마다의 색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곳.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이 되는 곳.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결 다채로운 곳이 됩니다.



## 우리 사회에 대한

##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

범죄심리학자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같은 문장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울림과 무게를 갖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범죄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전문가 코멘트를 구할 때 이수정 교수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범죄 심리와 관련해 방치됐거나 왜곡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그리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냈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온 범죄심리학자,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를 만났다.



### 경기대 그리고 범죄심리학자의 길

고등학생 때부터 이수정 교수의 관심은 우리 사회를 향해 있었다. 사회와의 접점이 있는 학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꿈꿨다. 이러한 밑그림대로 그는 학부에서 사회심리학을 배우고 이후 심리측정학을 전공하면서 조현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서장애를 측정하는 절차를 개발해 박사 논문을 썼다. 그랬던 그가 사회심리학에서 범죄심리학으로 범위를 좁히고, 연구 대상자를 조현병 환자에서 범죄자로 바꾼 데는 경기대의 영향이 컸다. “경기대는 교정학과가 있는 대학인데, 1999년 이곳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범죄자들의 위험 성향을 진단할 수 있는 심리검사로, 재범 위험성을 토대로 수용자를 분류하는 절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엄밀히 말하면 직장에서 부여받은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수정

교수가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향해 자발적으로 성큼 발을 내디딘 건 경남 마산경찰서에서 생애 처음으로 범죄자와 대면한 직후였다. “배우자를 토막 살인해 야산에 묻었는데 시신 일부를 찾을 수 없다며, 여성 피의자들이니 동성의 전문가가 설득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경찰청의 요청으로 내려갔어요. 40년 가까이 학대받으며 살던 중 술 먹고 난동을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한 페이지가 전부인 수사 기록에는 범행 동기로 ‘불화가 있던 중 앙심을 품고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앙심’이란 말에 도무지 설득도, 동의도 되지 않았어요. 범죄 심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던 시절이었지만, 외면하지 않고 평생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 이수정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 석사 및 박사를 마쳤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심리학과 석사 후 심리측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위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 대검찰청 전문수사 자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 <최신 범죄심리학>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등이 있다. BBC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1인이며, 주한 유럽연합이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대표이기도 하다.

# 이수정



### 범죄 심리 연구의 학문적 토대를 만들다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정학자가 생긴 경기대에 타이틀 하나를 추가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국내 대학에 전무했던 범죄심리학과 개설의 실행 주체가 된 것. 범죄심리학은 범죄자의 심리 특성 뿐만 아니라 법무행정에서 심리학적 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을 두루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는 벤치마킹을 위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넘게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형사정책학부 교환교수 생활을 했다. 미국에서 교도소가 가장 밀집한 지역인 만큼 그곳에서 직접 미국 심리학자들이 교정제도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텍사스에서의 경험은 경기대 일반대학원에 범죄심리학과를 개설하는 건 물론이고 이후 제자들과의 연구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그곳의 박사과정 학생들은 낮에는 교정시설에 가서 범죄자들을 만나 심리치료를 하고, 저녁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토론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이후 이수정 교수가 이끄는 범죄심리학과 수업

66

기본적으로 일과 사생활을 섞지 말고, 일은 일에서 멈춰야 합니다. 대신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교정공무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생산적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99

과 연구에서 교정시설에 수감된 범죄자 대상의 면담과 심리치료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다. 범죄심리학 전문가 부재 시 범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고작해야 죄명에 불과했다면, 이수정 교수가 국내 범죄심리학을 개척한 후부터는 교정시설 안에서도 위험을 초래할 자들을 예측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범죄자들과의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과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실 범죄자들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초창기만 해도 교정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있어도 직접 범죄자들을 만나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연구자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경기대가 연구를 명분으로 기회와 루트를 제공해 줬고, 여기에 시사 프로그램과 언론 활동을 통해 쌓은 인지도가 날개를 달아 주면서 하나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그중 하나인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 기준 또한 범죄자들과의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마련됐는데, 전자발찌 착용은 성범죄율을 6분의 1~8분의 1가량 낮추는 성과를 가져왔다.

### 트라우마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프로페셔널리즘

범죄자에 대한 공적인 자료와 통계에 접근하는 연구를 해 오다 보니 이수정 교수가 교정시설을 드나든 지도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적잖은 시간 동안 교정과 인연을 맺어 온 이수정 교수는 교정시설을 둘러싼 가장 반가운 변화로 심리치료과 신설을 꼽았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과 도입은 이수정 교수가 정책 과제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 그는 교정교화의 핵심은 심리치료에 있다고 강조한다.

“예전에는 교정교화라는 게 심성을 순화하고, 종교 활동을 하고 직업(학업) 훈련을 하는 정도였어요. 심성 순화가 있었지만 그 방법은 ‘신문 열독이 고작이었죠. 그런데 온갖 사건·사고를 담은 신문을 읽는 게 과연 심성 순화에 도움이 될까요? 교정교화는 하루 2시간 정도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해 주는 게 중요해요. 예상외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범죄자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심리치료과를 도입한 전국의 교정시설은 모두 다섯 군데. 이를 통해 재범률을 10%가량 낮추는 효과를 거둔 만큼 이수정 교수는 전국의 교정시설로 심리치료과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심리치료가 단순히 수용자에게만 필요한 시스템이 아니라 교정공무원에게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나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번아웃을 치유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무 환경 특성상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교정공무원이 적잖을 거예요. 실은 20년 넘게 끔찍한 범죄



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면담해 오면서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다행히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프로페셔널리즘, 즉 전문가가 되는 게 그것이죠. 기본적으로 일과 사생활을 섞지 말고, 일은 일에서 멈춰야 합니다. 대신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교정공무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생산적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이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이라는 이수정 교수는 요즘 20년 전에 했던 수용자 대상의 교정심리검사를 다시 하고 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위험 소지가 있는 수용자를 선별하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모아 요즘 시대에 맞는 재표준화 작업을 하는 것. 연구실 곳곳에 겹겹이 쌓인 박스 더미에서 이 일의 방대함이 엿보이지만, 이번에도 이수정 교수 덕분에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포용의  
아름다움

## 包容 포용

갈등보다는 화합을  
배제보다는 포용을

## 配慮 배려

추적보다는 나눔을  
염려보다는 배려를

## 關心 관심

무시보다는 관심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포용'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좁은 울타리를 넓게 확장하고 통합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입니다. 억지로 차이를 없애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닌, 무엇보다 차이를 대하는 것에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가능성이 발현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 온 가족의 2021 피날레,

## 싱그러운 낭만을 누리다

서울동부구청소  
교위 한용훈 가족

식물이 주는 힘은 세다. 사계절  
내내 푸릇한 생명력은 일상을 기분  
좋게 환기해 준다. 한용훈 교위  
가족이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에 나섰다. 오순도순 손길을  
더한 시간, 싱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패밀리 타임이 완성됐다.

※ 12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크리스마스트리  
제작 체험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스튜디오를 단독으로 예약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 다정하고 훈훈한 패밀리 가드너

“앗! 우리 집에도 있는 거예요!” 한용훈 교위 가족이 플랜트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남매 예서(9세)와 은서(4세)는 집에서 본 화분과 같은 식물을 마주하자 반가운 마음이다. 은서는 “이 열매, 먹을 수 있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던져 모두를 웃게 했다. 네 식구는 오늘 한 해의 피날레를 맞이하며 패밀리 가드너 도전에 나섰다. 식물에 오너먼트를 다는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에 나설 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내,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드는 추억을 쌓을 생각에 기대됩니다. 평소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터라 친숙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용훈 교위의 말에 아내 이정남 씨가 “남편이 휴일이면 항상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우곤 해요. 오늘은 평소 접하지 못한 체험이기에 더욱 기대됩니다. 특히 예서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라 온 가족이 함께 만든 트리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를 만들 차례. 테이블 위에 ‘호주 삼나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라우카리아가 놓였다. 공기 정화에도 좋은 침엽수로 생장이 천천히 이뤄져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나무다. 모녀와 부자가 각각 2인 1조로 짝을 지어 앉았다. 커를 가드너의 탄생이다.



엄마 아빠,  
화분 놀이 너무 재밌어요!  
예쁜 트리가 완성되는걸  
보고 싶어요~



**하나들, 손길과 온기를 더하다**

“흙은 식물의 ‘밥’에 해당해요. 기존의 마른 흙을 손으로 살살 털어 주세요. 영양분이 가득한 새로운 흙으로 갈아 줄 거예요.”  
가장 먼저 식물의 흙을 털어 주는 작업에 임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강사의 설명에 남매 또한 고개를 끄덕인다.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해 흙을 모두 털어 내고 식물의 ‘집’인 화분을 마주한다. 이들이 사용할 화분은 토분.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보다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 터. 과습이 되면 뿌리가 썩기 쉽다. 토분은 통기성이 탁월해 과습의 우려를 덜어 준다. 밑에 일명 ‘갈망’이라고 부르는 화분 거름망을 덧대 준 후 그 위에 작은 입자의 미사토로 화분의 5분의 1 정도를 채워 준다. 미사토는 물이 잘 빠지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한다. 작은 손으로 차곡차곡 미사토를 채워 넣는 남매를 바라보는 부모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퍼진다.  
“요즘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집 옥상에 식물을 키우는데 평소 흙이나 잎사귀를 어루만져 줘요. 나들이를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가서 그런지 자연에 점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과정은 배양토를 채워 주는 것이다. “식물의 ‘얼굴’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식물도 앞모습이 있거든요.” 강사의 설명에 가족은 식물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어여쁜 얼굴 찾기에 나선다. 화분에 식물을 넣고 배양토를 채워 주기 시작한다. 식물을 고정하기 위해 단단하게 눌러 주는 것이 포인트. 막내 은서는 의자 위에까지 올라서서 열정적으로 흙을 채웠다. 열정적인 ‘꼬마 가드너’의 모습을 본 온 가족이 웃음보를 터뜨렸다.  
“우리 나무에게 이름을 지어 주자. 예서나무, 은서나무가 어떨까?” 바로 세워진 식물을 보며 가족들은 나무의 이름을 떠올려 본다. 이제 데커레이션 스톤을 올려 줄 차례다.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하나씩 돌을 채우는 즐거움이 크다. 돌 하나도 신중히 고르고 골라 예쁜 돌을 놓아 준다. 예서는 벌써부터 식물의安危를 걱정한다. “선생님! 매일매일 물을 줘야 해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럼 옥상에 놓을까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귀마개를 씌워 주면 어떨까요?” 어느새 가드너로서의 책임감이 심어진 듯하다.

**가족 추억이 방울방울**


트리 만들기의 하이라이트는 오너먼트 달기. 볼과 말린 과일, 솔방울을 나무에 걸어 준다. “어디가 좋을까?” “여기 어때요?” 하나하나 더해지는 오너먼트처럼 가족의 추억도 방울방울 쌓인다. 알콩달콩 열심히 임하는 두 남매를 바라보는 아빠와 엄마의 눈빛이 더욱 깊어진다.  
“두 아이는 2010년에 결혼해서 얻은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지요. 아내랑은 서울과 대전을 오가면서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됐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지냅니다. 남매 또한 우리를 닮아서 그런지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꼭대기에 리본을 묶고 와이어 친구까지 두르자 드디어 완성이다. 딸깍. 전원을 켜자 환한 불빛이 가족의 얼굴을 밝힌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다. “일반 트리는 사용한 후 처리가 문제였는데, 식물 트리는 곁에 두고두고 보며 기를 수 있어서 좋아요. 사계절 내내 의미 깊은 반려 식물이 될 것 같아요”라는 엄마의 말에 모두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한용훈 교위는 식물이 함께하는 싱그러운 일상을 떠올리며 가족의 꿈을 곱씹는다.  
“거창한 바람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성장하는 가족이요. 아이들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와 준 식물처럼 푸르고 맑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흙과 잎사귀를 매만지며 식물의 생명력을 만끽한 시간. 오늘의 추억을 품고 아름다운 시간의 지층을 쌓아 갈 가족의 미래를 응원한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 따스한 관심과 포용이

## 수용자의 인생을 바꿉니다



**박종덕**(충주구치소 보안과 교감)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교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꾸준한 관심과 포용으로 수용자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박종덕 교감은 지난 28년간의 교정공무원 생활을 통해 그 중요성을 몸소 증명해 왔다.



66

요즘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집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니까요

99

**Q.** 월간 <교정>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주구치소 보안과 보안2부 당직교감을 맡고 있는 박종덕입니다. 1993년 10월에 임용된 뒤 청주교도소 보안과, 사회복귀과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8년 수용자 취업전담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취업위원들과 함께 누리뜰희망IT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출소자 취업과 연계하는 일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후 청주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4년여간 근무하며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업무에 매진했고,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2017년 제35회 교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뒤 대전교도소를 거쳐 작년 7월에 충주구치소로 와 현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교감님은 어떤 중점 사항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신가요?

취업전담반에서 일할 때는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교정심리치료센터에 있을 때는 성폭력 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죠. 그리고 보안과 당직교감으로 일하는 지금은 교정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안2부 직원들과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근무 시에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이렇듯 저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사 최선을 다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저의 업무 중점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Q.** 신뢰감은 수용자 교화의 기본 덕목인데요. 수용자와 어떻게 신뢰를 쌓고 계신가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여 주는 작은 관심만으로도 수용자와 라포르(rapport)를 형성할 수 있어요. 평소 수용자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변화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날은 얼굴빛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해요. 이때 요즘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뤄집니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이 교정기관에서 믿고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니까요. 안부를 물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면담 요청이 옵니다. 그때 커피 한 잔 사이에 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20년 가까이 수용 생활을 한 윤성여 씨와의 인연도 이렇게 이뤄졌어요.

**Q.** 재심 끝에 무죄를 받은 윤성여 씨가 교감님을 '평생의 은인'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수용자들을 대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에 처음에는 윤성여 씨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초임 시절부터 2009년 가석방될 때까지 20년여 동안 그의 이야기에는 한 치도 변함이 없었어요. “형사보상금 때문이 아니라 죽어서 어머니 뵈러가 없어서 그런다”며 끊임없이 재심 신청을 도와 달라고 말하는 그를 보며 ‘정말 무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석방된 후 청구의 한 출소자 거주 시설을 통해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춘재가 진범임이 밝혀졌고, 윤성여 씨에게 재심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의 여러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어요. 평소 수용자들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 나가려고 했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Q.** 지금도 출소자 상당수에게서 연락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운 좋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수용자가 있었는데, 평소 착실하고 행실이 좋아서 세종시에 있는 한 업체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안부 연락을 주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업체에서 대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만난 한 수용자도 기억에 남아요. 출소 후 연락이 끊겼었는데, 저와 윤성여 씨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고는 충주구치소로 찾아와 “교도소에 있을 때 교감님을 만났기에 열심히 살고 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후 때때로 연락해서 고민을 털어 놓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 줍니다. 이런 출소자들을 볼 때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정 공무원 생활을 했구나’ 싶고,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Q.** 간혹 교정공무원들의 교화 노력을 저버리고 계속 나쁜 일을 저지르거나 교정공무원과의 신뢰를 악용하는 수용자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교화는 무조건 잘해 주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객관적인 신상필벌도 교화의 일환이에요. 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계기와 시간을 부여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잘못이 사소하고 스스로 철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면 때로는 벌 없이 용서를 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수용자가 사소한 일로 작게 다했는데 상처나 기물 파손이 없고 두 사람 모두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마스한 포용의 자세를 보여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다음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더욱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는 냉철한 모습을 함께 보여 준다면, 오히려 무조건 규칙을 적용할 때보다 더욱 큰 교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판단력은 교정공무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Q.** 후배들이 성공적인 교정공무원 생활을 이어 나가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할까요?

한마디로 ‘역지사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들이 교정기관 안에서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이기에, 수용자 입장에서 여러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는 것이 교화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상담 시 수용자에 대한 기초 정보를 먼저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 대화를 이끌죠. 그러다 보면 수용자들도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고, 이는 출소 후 성실한 인생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수용자를 대할 때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화의 시야가 한층 넓어질 겁니다.

**Q.** 교감님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정년퇴직이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수용자 교화와 출소 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안2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계장님들과 임원준·김소현·조아라 교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모든 교정공무원에게 자부심을 갖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모두 ‘파이팅’합시다!

일상을 펼치다

교정인 원픽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 충주구치소의 주인공입니다!

충주구치소 장원재 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충주구치소의 주인공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이지요!” 실제로 충주구치소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편리한 일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월간 <교정>도 충주구치소의 주인공을 위해 겨울철에 유용한 ‘핫 아이템’을 준비했다.



## 교정공무원의 기를 살리는 적극적 소통과 실질적 변화

2004년에 개청한 충주구치소는 이후 줄곧 평온한 일상을 지켜 왔다. 교정기관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곧 별일 없는 일상을 위해 모든 교정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정기관은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모든 업무가 탈 없이 진행돼야 기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다양한 업무 중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톱니바퀴 하나 때문에 기계가 멈추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불상사를 20년 가까이 막았다는 뜻이니, 그간 충주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얼마나 컸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충주구치소는 그 헌신에 보답하고자 언제나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먼저 직원들의 제안에 따라 한자로 쓰인 현판을 한글 현판으로 교체했다. 또 직원 탈의실, 휴게실, 침실을 차례대로 리모델링했으며, 수용동 일부를 개조해 쓰고 있던 직원 식당을 옛 경비교도대 건물 한편으로 옮겨 쾌적한 식사 환경을 만들었다. 청사와 직원 식당을 연결하는 길에는 계단과 지붕을 설치해 오갈 때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나아가 수용자 가족 접견실도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는 등 충주구치소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렇듯 살뜰하게 직원들을 챙겼기 때문일까. 충주구치소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쳤기에 완성할 수 있었던 값진 결실이다. 그간 고생한 교정공무원들을 위해, 월간 <교정>도 겨울에 잘 어울리는 다양한 선물과 함께 충주구치소를 찾았다.

## 굳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다

### ‘접이식 실내 자전거’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실내 생활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어든다. 그 때문에 자칫하면 몸이 뻣뻣해지고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 자기 관리가 기본 덕목이 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바깥 활동을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충주구치소 교정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월간 <교정> 취재진이 접이식 실내 자전거를 선물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다.

호송 차량 운전이 주 업무인 복지와 양승우 운전서기보는 업무 후 운동 시간을 따로 낼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다. 계속 앉아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허리가 아프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 겨울철에 할 유산소운동을 알아보고 있었다던 그는, 때마침 도착한 접이식 실내 자전거를 보자마자 시연에 돌입했다. “각종 운동 정보가 나오고 핸드폰 거치도 가능해서 더 편리하게 탈 수 있겠네요. 덕분에 한시를 덜었습니다.(웃음)”

보안과 심리치료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림 교도도 실내 접이식 자전거가 특히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저희 팀은 수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 건강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실내 자전거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무척이나 반갑네요. 저도 자주 이용하며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겠습니다!”

### 칼바람과 강추위, 이제 문제없어요!

#### ‘방한 장갑 & 넥 워머’

산세가 좋은 충주는 겨울철 추위로 남다르다. 추위로 인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장기와 순환기, 근육과 관절이 굳어 일상생활 자체가 무거워진다. 심하면 감기, 독감 등에도 시달릴 수 있다.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방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 월간 <교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교정공무원이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방한 장갑과 넥 워머를 넉넉하게 준비했다.

상대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총무과 진용재 교도는 의외로 방한용품 가장 반가운 ‘원픽’으로 택했다. 그 이유를 묻자 따스한 대답이 돌아온다. “보안과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서요. 특히 당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순찰을 돌거나 외부로 나갈 때 착용하면 좋겠어요.” 충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배려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의료과에서 신입 수용자와 치과 진료를 담당하는 권오길 교사도 방한용품이 유용할 것 같다고 말한다. 수용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실내와 추운 환경을 자주 오가다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감기에 걸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방한 장갑과 넥 워머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수용자의 건강을 챙기려면 무엇보다 저희들이 건강해야 하는 만큼 오늘 주신 선물과 함께 이번 겨울, 건강하게 이겨 내겠습니다.”

###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다

#### ‘핸드크림’

겨울의 추위와 바람은 손을 부르르치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핸드크림을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꼽는다. 충주교도소 교정공무원들도 겨울이 되면 으레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니지만, 자리를 옮길 때마다 챙기는 건 은근히 성가시다. 만약 핸드크림이 곳곳에 비치돼 있다면 교정공무원들의 손 건강을 더욱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월간 <교정>이 고급 핸드크림을 전달한 배경이다.

사회복지과에서 서무 업무를 보는 천경민 교사가 “안 그래도 손 건강이 신경 쓰였다”며 핸드크림에 손을 뻗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손 소독제를 사용해 왔다. 덕분에 감염병은 완벽하게 막았지만, 손이 거칠어지는 상황은 막을 도리가 없었다고. “앞으로는 밖에 나갈 때나 손 소독을 한 직후에 핸드크림을 더욱 자주 바를 수 있겠어요. 월간 <교정>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웃음)”

실내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도 외부 활동이 잦은 교정공무원 못지않게 손이 부르르다. 실내가 건조하고 공기가 차갑다 보니 피부에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수용기록과 김요환 교도도 이런 점을 이야기하며 핸드크림을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로 꼽았다. “선물해 주신 핸드크림 덕분에 이번 겨울은 모두 ‘손남손녀’가 되겠네요. 예뻐진 손으로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 청아한 호수, 물길에 의지하다

충주로 넘어서는 고갯길에는 물 향기가 배어 있다. 월악산에 웅크린 구름과 충주호의 새벽안개는 탐스럽다. 충주의 길들은 호수와 강으로 연결된다. 2004년 개청해 송강천 가까이 들어선 충주구치소는 탄금호, 남한강의 물줄기와 사연을 함께한다.



# 충



# 주

### 길과 산, 강을 연결하는 충주호

충주의 청정한 물길로 접어드는 길목들은 고즈넉하다. 봉우리를 휘감는 구름과 호수의 파문에 마음이 정갈해진다. 충주 여행은 수안보에서 597번 도로를 따라 월악산 국립공원을 가르는 길에서 시작한다. 차량이 드물어 길은 오붓하며 석굴사원인 미륵대원지 등을 방문할 수 있다. 고려 초기의 석굴사원 터인 미륵대원지는 오랫동안 폐사지로 알려졌지만 석불 입상, 석등, 석탑 등 옛 석굴사원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월악산 숲에서 벗어나면 탁 트인 호반길이 이어진다. 조각난 호수의 여러 단면이 출몰하는 길들이다. 월악나루에서 감상하는 호수와 하늘은 아득하다. 충주에서 단양까지는 52km 뱃길이 이어지는데, 그 뱃길에 산이 얽히고 고개가 어우러진다.

충주호의 물줄기는 길, 숲을 넉넉히 품에 안고 있다. 충주호와 나란히 이어지는 길이 종댕이길이다. 길을 걸으며 호수를 조망할 수 있으며 곳곳에 정자와 전망대가 마련돼 여유로운 발걸음이 가능하다.

### 차박 캠핑 명소인 누수팔봉

충주의 남서쪽에는 달천이 흐른다. 달천 누수팔봉은 송곳바위, 중바위, 칼바위 등 깎아지른 봉우리들이 물 위에 솟아 오른 모양새다. 누수팔봉이 유래된 누수마을과 팔봉마을을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다. 갈라진 암벽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는 풍경은 누수팔봉의 대표 경관이 됐고, 팔봉마을 앞 자갈밭은 차박 캠핑 명소로 소문이 났다. 칼바위 폭포는 살미면 토계리에서 흘러드는 오가천 물길을 달천으로 연결하기 위해 바위를 잘라 내 형성됐다.

칼바위 정상에는 구름다리가 놓였다. 구름다리과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달천과 누수팔봉, 팔봉마을이 조화롭게 담긴다. 누수팔봉은 tvN 드라마 <빈센조>의 배경으로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한 생태계가 잘 보전된 달천 중·상류는 예로부터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누수팔봉은 충주구치소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하룻밤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 국내 유일무이한 고구려비와 무술박물관

국내에 단 하나뿐인 고구려비와 무술박물관도 충주행 발길을 호기심으로 채운다. 입석마을에 자리한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고구려비를 간직한 공간이다. 국보 제205호인 충주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확장했음을 보여 주는 소중한 유물로, 비문에는 5세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와 문화 등이 적시되어 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입석마을의 대장간 기둥으로 사용되는 등 파란만장한 시절을 겪기도 했다.

충주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인 택견의 본고장이다. 충주세계무술공원 안 세계무술박물관은 동서양 무술을 한데 모아 전시 중이다. 격투기에서 언급되는 각 나라의 무술을 지도, 의상, 사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며 무술 체험 공간도 마련돼 있다. 세계무술공원은 미로공원, 나무숲놀이터 등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도 갖췄는데 공원과 박물관 입장은 무료다.

겨울의 문턱에는 갈대 무성한 비내길이 호젓함을 더한다. 비내길은 남한강 변을 따라 연결되는 10km 남짓의 걷기 좋은 길로 철새전망공원, 비내섬, 양성탄산온천을 운치 있게 연결한다.

### 체험 어우러진 중앙탑공원, 탄금호

탄금호 변의 중앙탑사적공원은 물, 사람, 유적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한강 둔치처럼 번잡한 곳이 아닌 국보를 품은 아늑한 수변 쉼터다. 공원 안은 조각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슬한 조각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국보 충주탑평리칠층석탑이다. 이 석탑은 신라의 석탑 중 가장 높은 7층 석탑으로 공원 한가운데 솟아 있다.

중앙탑사적공원에서는 ‘입고, 찍고, 타고 놀까’ 체험이 흥미롭다. 기와집인 중앙탑의상대여소는 한복 외에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 교복, 영화 캐릭터 의상과 소품을 빌려준다. 개성 넘치는 옷을 입고 2시간 동안 산책에 나서거나, 초가집인 중앙탑사적관에서 ‘흑백 셀프 사진’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더불어 자전거 대여도 가능해 충주구치소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탄금호에는 최근 전기로 움직이는 친환경 유람선이 등장했다. 탄금호 유람선은 국내 최초로 전기와 태양광을 동력으로 이용한다. 유람선은 국제조정경기장, 중앙탑사적공원, 무지개길 구간을 소음 없이 운행한다. 탄금호 옆 탄금대는 신라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다고 알려진 곳으로 소나무 숲 산책길이 멋스럽다.



### 수안보의 웰빙 음식 '올갱이 해장국'

수안보 온천 지구는 웰빙 맛집으로 명성이 높다. 올갱이 해장국과 꿩고기가 인기 메뉴인데,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방언으로 달천 등 남한강 지류에서 직접 채취한다. 해장국집들은 아침 일찍부터 손님을 맞는다. 올갱이는 된장에 풀려 숙취를 식이는 담백한 맛을 낸다. 크기는 작아도 오뎅처럼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수안보 일대는 손두부가 맛있기로 잘 알려져 있다. 할머니들이 집에서 손수 만들었다는 손두부를 동동주와 함께 내놓는다. 수안보 일대는 물이 좋아 두부도 맛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전언이다. 또한 사과의 고장인 충주는 사과국수, 청명주로도 유명하다.



# 1회용 비닐봉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내일은 비닐봉지 없는 날

물건을 구입할 때 누구나 찾는 것이 있다. 바로 비닐봉지다. 잘 썩지도 않고 태우면 대기오염을 유발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당연한 듯 비닐봉지를 받아 들곤 한다. 그 결과 미세 플라스틱이 급증해 수많은 해양 생물이 생명을 잃고 우리의 식탁도 위협해졌다. 일상 속에서 비닐 사용을 조금씩 줄여 보는 작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우리 집에서 실천해 보는 비닐봉지 없는 날

- 1 물건을 살 경우를 대비해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요.  
 YES  NO
- 2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을 샀 때에는 비닐봉투를 가절해요.  
 YES  NO
- 3 사용한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해요.  
 YES  NO
- 4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나 주머니를 사용해요.  
 YES  NO
- 5 집에 가지마자 버기는 세탁소 비닐, 안쓰워도 된다고 말해요.  
 YES  NO

항목당 YES는 2점, NO는 -2점, 만점은 10점  
 10점 만점 친환경 히어로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 우리가 산 비닐봉투는-



25분

비닐봉지 평균 사용 시간



100년

버려진 비닐이 분해되려면

\* 출처: 제로웨이스트유럽

## 단 하루 비닐봉투를 쓰지 않았을 때 지구상에 생기는 변화



52,000,000장

비닐봉지 사용량 감소



951,600ℓ

원유(비닐 원료) 이용량 절감



6,700톤

이산화탄소 감축량

\* 자료: 자원순환사회연대

## 비닐 속에 비닐 속에 또 비닐... 한국의 비닐봉지 사용량 세계 1위

이미 하나씩 잘 포장된 우유팩을 또 비닐에 담는다. 비닐로 개별 포장된 과자도 묶음 판매용 비닐로 다시 감싼다. 사람들은 비닐을 많이 쓰고 그만큼 많이 버린다. 많은 사람이 비닐을 분리배출하면서 재활용이 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불에 태워지는 비닐이 더 많다. 2019년 기준 비닐류 생활 쓰레기 선별량은 56만 톤을 넘겼다. 문제는 한번 버려진 비닐봉지가 분해되기까지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데 있다. 석유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는 비닐봉지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하천과 땅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최근 생분해 비닐봉지를 나눠 주는 상점이 크게 늘었다. 봉투 아랫부분에 “스스로 분해되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법하다. 그러나 이는 땅에 묻었을 때 생분해가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 한국의 여건과 맞지 않고 큰 의미가 없다.

## 비닐 쓰레기에 몸살 앓는 지구 작은 실천으로 바꾸기 Go Go!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민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평균 370여 장에 달한다. 독일의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70여 장, 스페인은 120여 장으로 우리나라의 사용량이 훨씬 높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비닐봉지를 하루만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190억 장이다. 단 하루만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약 5,200만 장의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원유 약 95만 1,600ℓ를 절약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산화탄소 약 6,700톤이 감축된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비닐 사용을 줄이고 생태계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고고 챌린지’도 그중 하나다. 고고 챌린지는 각종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일 한 가지를 거부하고(Go),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실천하고(Go)’라는 모토의 줄임말이다. 상당한 양의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는 비닐봉지 없는 날, 우리 집도 도전!



## 지구를 지키는 사소한 습관 하나

꼭 에코백부터 장만해야 시작할 수 있는 챌린지가 아니다. 사 놓고 쓰지 않는 에코백은 ‘환경적 과소비’일 뿐이다. 에코백이 정말로 지구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131번은 써야 한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어려운 미션인 셈이다. 그저 집 앞 편의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손에 들 수 있는 물건을 샀 때에는 계산대에서 ‘비닐봉지는 안 주셔도 돼요’라고 한마디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내일은 외출 전에 봉투 하나를 미리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의 첫걸음을 댄다. “Go Go!”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 호 월간 <교정>에 소개한 ‘비닐봉지 없는 날’ 캠페인에 동참해 봅시다. 가족과 함께한 도전과 실천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 “라떼는 말이야~” 직장인이 느끼는 세대 차이

세대 차이는 서로 세대가 다른 사람들 간에 감정과 가치관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 세대 간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세대 차이는 세대 간에 갈등과 대립을 일으켜 직장 내 업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세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인의 갈등을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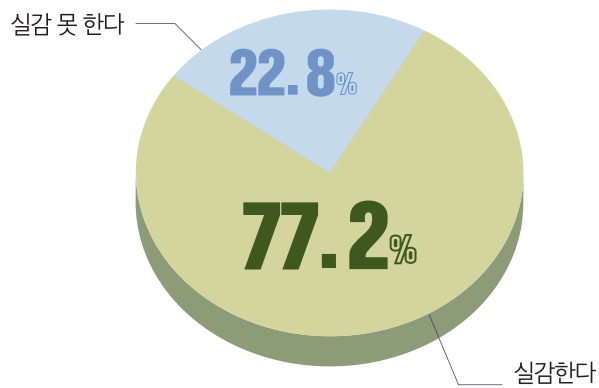
## 위 세대가 더 많이 느끼는 세대 차이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하 사람인)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 갈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77.2%는 '세대 차이를 실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답변을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96.1%), '86세대'(80.5%), 'X세대'(78.7%), 'MZ세대'(76.1%) 순으로 세대 차이는 위 세대로 갈수록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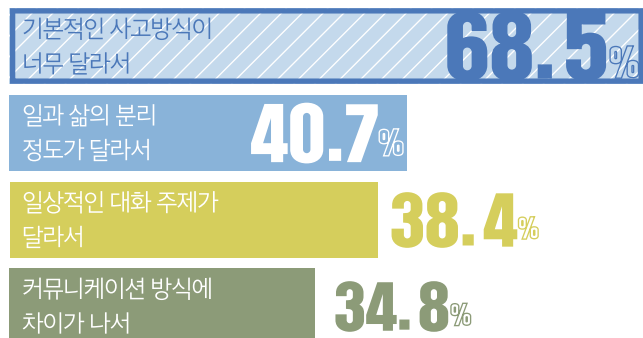
직장인들이 세대 차이를 실감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68.5%)가 컸다. 계속해서 '위라벨 중시, 야근 최소화 등 일과 삶 분리 정도가 달라서'(40.7%),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달라서'(38.4%),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차이가 나서'(34.8%), '회의, 피드백 등 업무 방식에 차이가 나서'(31%), '복장 등 직장 생활 방식에 차이가 나서'(16.9%), '친목 도모 모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16.7%) 등으로 문화 차이를 느꼈다.



## 세대 차이 실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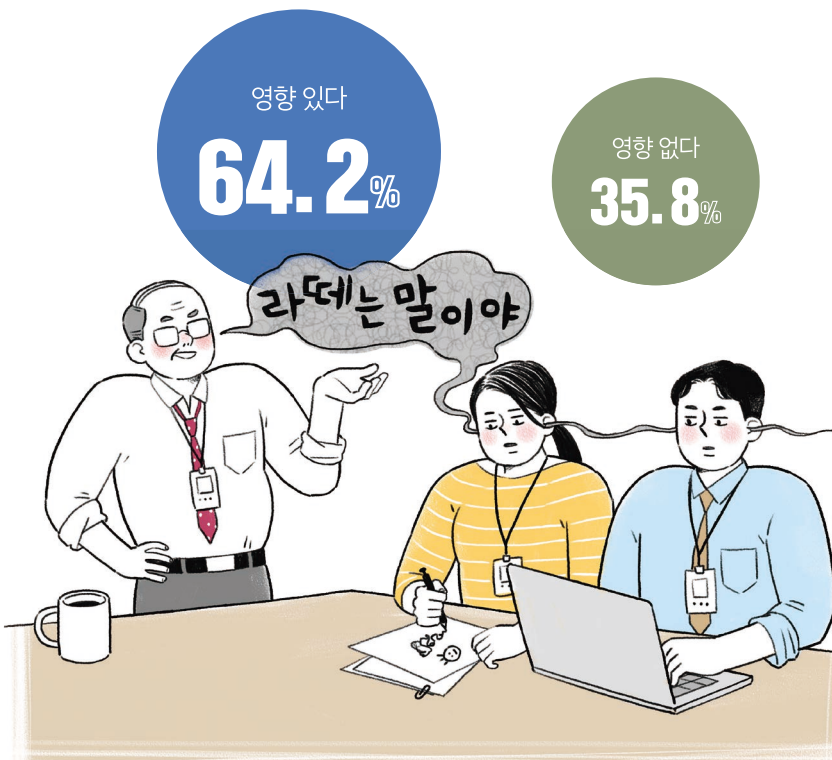
## 세대 차이를 실감하는 이유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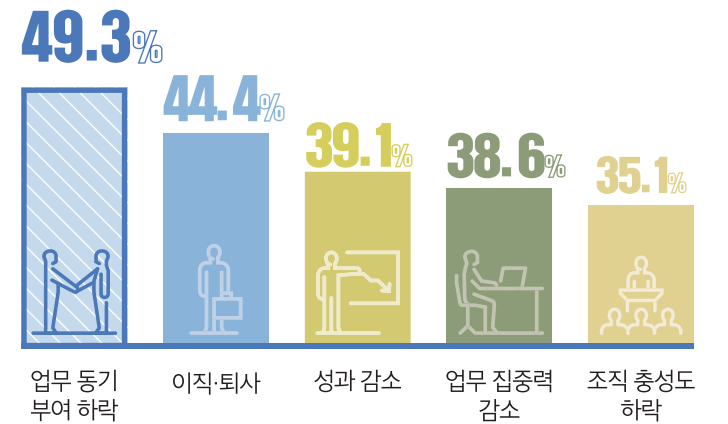
## 업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양상은 직장의 대표적 문화로 꼽을 수 있는 회식과 야근 등에서도 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61.5%)와 86세대(40.3%)는 회식이 '팀 빌딩을 위한 즐거운 행사'라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X세대는 '회사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38.4%)으로 인식했으며, MZ세대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37.7%)라고 생각하고 있다. 업무상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변한 직장인은 전체 응답자의 64.2%로 절반 이상이었다. 미치는 영향(\*복수 응답)으로는 '업무 동기 부여 하락'(49.3%)이 제일 컸다. 이어 '이직·퇴사'(44.4%), '커뮤니케이션 단절로 성과 감소'(39.1%), '업무 집중력 떨어짐'(38.6%), '조직 충성도 하락'(35.1%) 등의 업무 영향이 있었다. 교정공무원 역시 젊은 세대들이 임용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대를 막론하고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70.2%)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한 '되도록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맞춰 주려고 한다'(51.7%), '상대방의 관심사를 찾아본다'(29.8%),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든다'(22.9%) 등의 노력을 한다고 답했다.

## 업무상 부정적 영향 여부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복수 응답)



## 세대 차이 극복 Check List!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한다면 친목만 고집하는 것도, 내 인생을 위한 돈벌이일 뿐이라고 회사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도 좋지 않다. 개인의 발전이 회사의 성장으로, 회사의 성장이 개인을 끌어 주는 상호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협의와 서로 간의 존중,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내가 '꼰대' 성향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가 진단으로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

-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초면에도 반말을 한다.
-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많다 생각한다.
-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적으로 단점과 약점부터 찾게 된다.
-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조금 개방적인 후배나 동료의 출근 루트가 거슬린다.
-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하고 결국 내가 제시한 답으로 정한다.
- 내가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다.
- 회사 모임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가 계속 신경 쓰인다.
- "내가 너 나이였을 때"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는 후배가 불쾌하다.
- 사생활 영역에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

- 0~2개  
당신은 진정한 어른
- 3~5개  
꼰대 조짐이 보이는 당신
- 6~10개  
꼰대 주의보
- 11개 이상  
자기반성의 시간 필요

## 관심과 포용이 필요한 시간



###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 분별력

관심이 생기고, 또 무관심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호나 취향, 애호나 애착은 모두 이 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연스레 관심이 가는 일이 있는 반면, 아무리 접해도 좀처럼 관심이 생기지 않는 일도 있다. 때로는 싫거나 혐오스러운 일까지도 생긴다. 정보가 넘치는 현대사회,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많은 사물, 사람들과 마주한다. 어쩌면 우리는 무관심을 삶의 도구로, 방어막으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고, 가져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일에 관심을 둔다면 시간과 에너지가 금세 소진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 분별심이다. 내 삶에 도움이 될 것에 관

심을 갖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 혹은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것에는 무관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관심이 필요한 대상에는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져야 할 대상에는 계속 마음을 뺏긴다. 그래서 진지한 인생에서는 삶을 풍요롭게 할 만한 것을 찾아내, 관심 가질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다.

### 때로 무관심은 병일 수 있다

도시에서 삶의 8할은 무관심이 지배한다. 도시의 삶을 동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친 간섭과 관심에서 벗어나 자연스레 무관심 상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극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고독하며, 때로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편으로

관심 갖거나, 관심 받기를 두려워한다. 관심을 주거나 관심을 받는 일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의도적으로 무관심을 즐기고 이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의 관심이 그저 매스미디어 속 모르는 사람 정도에나 향할 뿐, 주변 사람이나 사물들에는 좀처럼 뻗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친 무관심은 마음의 병일 수 있다. 무관심(indifference)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관심이거나 애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무관심이 자기 삶을 지배한다면 혹시 무기력이나 희망 없음(hopelessness)의 징후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매사에 열정을 느낄 수 없는 마음, 우울이나 비관이 무관심을 유발하는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사실 건강한 무관심은 어려운 일이며, 오히려 적절한 관심과 애정만이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 건강한 관심의 원동력, 포용력과 개방성

철학에서는 건강한 무관심을 무심(無心)이라고 말한다. 무심과 무관심은 다른 말이다. 무심은 큰 의도 없이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무심은 오랜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정신이다. 대상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대상을 편견 없이 더 잘 이해하고, 통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관심은 다르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무관심을 조장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안에 무관심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싫거나 내 삶을 방해해서, 혹은 혐오나 미움 같은 심리적 거리낌 때문일 때가 많다. 무관심의 대부분은 '의도적 무관심'인 것이다. 어느 날 그것이 내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켰기에 의도적으로 무관심의 '스텐스(stance,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어쩌면 내 안에 무관심이 많은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혐오나 증오 같은 심한 거리낌까지는 아니라도 상대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고 있는 것이 원인인지도 모른다. 이런 부정적 무관심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포용력과 개방성이다. 현대사회를 '혐오사회'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혐오사회를 만들고, 또 퍼뜨리는 것은 나와 너, 혹은 그것들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다. 이런 배타성이 들어차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끌어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프랑스어 톨레랑스(tolérance)는 관용, 아량, 포용력을 뜻한다. 이는 인류의 정신적 전통이자 미덕이다. 톨레랑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와 다른 사람의 정치적·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자기 생각에만 갇히지 말고,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또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혐오와 차별이 넘쳐 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

### 관심, 포용력을 넘어서는 연민과 공감

천재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는 최저의 삶을 산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는 심지어 미성년자와 동성연애를 한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가 <행복한 왕자>다. 이 작품은 마치 자기 삶을 참회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이 동화에서 주인공인 왕자는 죽은 후 동상이 돼서야 비로소 인간의 진실을 깨닫는다. 동상이 된 왕자는 곁에 머물던 제비에게 자신의 동상을 꾸미고 있는 보석을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나눠 주게 하고, 끝내는 볼품없는 흙물이 된다. 행복은 나눔임을 깨닫게 하는 줄거리다. 동화 중반에는 눈물의 의미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다. 왕자가 심부름에 지친 제비에게 답했다.

“내가 살아 있으며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단다. 항상 슬픔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에 갇힌 채 살았기 때문이지. 낮에는 정원에서 친구들과 뛰놀고, 저녁에는 파티에서 춤을 췄지. 성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도통 알지 못했어. 그런 나를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단다. 난 그저 행복이란 기쁨이라 여겼지. 내가 죽고,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만들어 여기에 높다랗게 세워 놓았어. 이곳에서 난 도시의 비루함과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지. 비록 내 심장은 납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멈출 수 없는 것이란다.”





# 알쓸꿀잡

##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겨울철 난방비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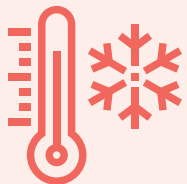
이른 추위에 난방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진다. 바야흐로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계절이 다가왔다. 가스비, 기름값 폭탄을 맞을까 봐 무섭지만 그렇다고 보일러를 끄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겨울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난방비 절약 꿀팁을 소개한다.

### 난방비 줄여 주는 올바른 보일러 사용법

# 1

####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1℃

바깥 날씨가 춥다고 해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21℃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 온도를 더 높일 경우 난방비는 무려 15% 이상 증가한다. 설정 온도가 높으면 온도 유지를 위해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느라 그만큼 연료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내외 온도 차가 크면 건강에도 좋지 않다. 과도한 난방으로 건조해진 공기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 2

#### 짧은 외출 시 보일러 끄지 않기

2~3시간 잠시 외출할 경우에는 실내 온도를 2~3℃ 낮게 설정하고 보일러 전원을 켜 놓는 것이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따뜻한 바닥을 유지하는 것보다 바닥이 차가운 상태에서 난방을 가동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연료비가 들기 때문이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도 전원을 끄기보다 외출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난방비 절약에 유리하고 한파 시 보일러 동파도 예방해 준다.



# 3

#### 안 쓰는 방은 분배기 밸브 잠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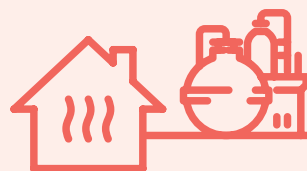
사용하지 않는 방은 분배기의 온수 밸브를 잠그고 방문을 닫아 두자. 불필요한 열 손실을 방지하고 보일러가 가열해야 하는 난방 수량과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된다. 하지만 난방수 유량이 턱없이 부족해도 보일러가 자주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게 된다. 어느 정도 난방 효율이 발생하려면 분배기 밸브 가운데 최소 두 개 이상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 4

####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차이 알기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온수를 지역 내 건물로 보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지역난방 보일러는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1~2℃ 수준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편이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다. 또한 가구별로 난방을 하는 개별난방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온수비는 별도로 추가된다. 온수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개별난방보다 더 높은 난방비를 지불할 수도 있다.



### 실내 온도 높여 주는 겨울철 생활 습관

#### 바닥 온기를 지켜 주는 카펫과 러그

한국의 온돌식 주거 공간은 바닥 온기만 잘 보존해도 집 안 전체의 온도가 상승한다.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 담요 등을 깔아 두면 난방 온도를 높게 설정하지 않아도 바닥의 한기를 막아 준다. 두꺼운 직물 사이의 공기층이 보온 효과를 발휘하는 원리다. 보일러를 켰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바닥으로 열을 전달하고, 반대로 보일러를 끈 후에도 잔열을 오래 유지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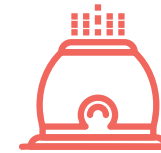
#### 내복과 수면 양말이 체감온도 높여 줘요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가량 높아진다. 내복을 입고 실내 온도를 3℃ 낮출 때 절약되는 난방 에너지는 20%에 달한다.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해 주고 가벼운 실내 조끼를 함께 착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8~21℃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안팎의 온도 차를 줄이면 건강에도 좋다. 인체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줄기 때문이다.



#### 가습기 함께 쓰면 더 빨리 따뜻해져요

보일러를 켰 때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공기 순환이 활성화돼 실내 공기가 더 빨리 데워진다. 감기나 비염 등 겨울철 호흡기 질환도 예방하니 일석이조다. 가습기가 없다면 천연 가습기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젖은 빨래를 옷걸이에 걸어 놓아도 되고, 키친타월을 나무젓가락에 걸어 물을 담은 용기에 걸쳐서 만드는 천연 가습기는 소형 가습기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한다.



#### 난방비 폭탄 막아 주는 보일러 정기 점검과 청소

주기적으로 보일러를 청소하고 고장 난 부분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난방비 폭탄을 막을 수 있다. 오랫동안 배관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계속 쌓여서 난방수의 흐름을 막는다. 난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보일러를 자주 켜지도 않았는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방바닥 군데군데 차가운 부분이 많다면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수리하자.



#### 커튼과 단열 제품으로 외풍을 막아 주세요

문풍지와 방풍 비닐로 창문과 현관문 틈으로 새어 나가는 열을 차단하면 난방비가 최소 10% 이상 절감된다. 단열 필름, 단열 에어캡을 창문 안쪽 유리에 붙이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아 주므로 실내 온도를 2~3℃ 높일 수 있다. 창틀이 많이 낡았다면 방풍 비닐로 창문 전체를 덮어 외풍을 차단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시간에는 커튼을 쳐서 단열 효과를 높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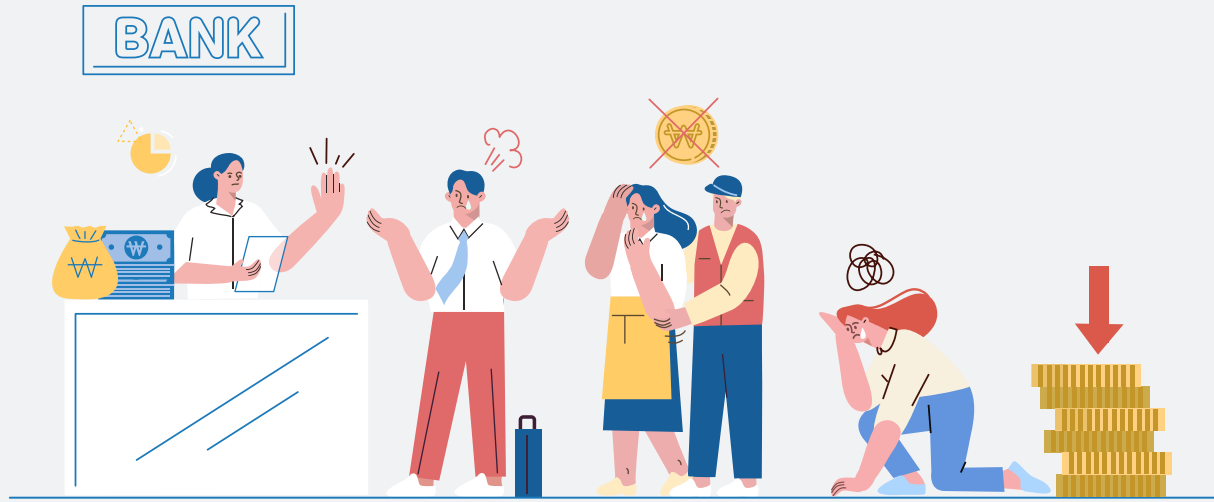


#### 아늑한 캠핑 분위기 훈훈한 난방 텐트

노후 주택의 외풍은 좀체 해결하기 어렵다. 침실에 난방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난방 텐트는 사람의 체온을 활용한 공기 대류 작용으로 난방 효과를 발휘한다. 외풍은 차단하고 더운 공기는 텐트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3~4℃가량 상승한다. 일반 텐트와 비슷한 모양에 아늑한 캠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인테리어로도 멋스럽다.



# 대출 규제 강화 속 대출 잘 받는 방법은?



## 혼란스러운 대출 시장, 동향 파악 중요

2021년 하반기 대출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기준금리 인상에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신용도와 무관하게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무엇보다 100% 실수요자인 전세 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 논란이 됐다. 전세 대출은 금방 다시 허용돼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용대출은 생활 자금 목적이라고 해도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지난 10월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출범 9일 만에 정부가 허용한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토스뱅크로 달려간 영향이었다. 대출은 2022년에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흐름 등을 감안하면 금리를 올려야 할 것 같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마냥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상하든, 인상 기조를 늦추든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라면 정부와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당분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 계속될 듯

결론부터 말하면 당분간은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연말연초는 확실히 어렵다. 2021년 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은행이 많고, 1월이 된다고 해도 바로 다시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월 중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고, 1월에도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올린다니, 올리기 전인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11월 현재 금융채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이 이미 대부분 다 반영돼 있다. 지금은 가산금리가 최고치를 찍고 있는 구간이라, 어지간히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12월은 재무 상태를 정비하는 기간으로 두자. 쓰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 특히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좋고, 2금융권 대출은 없애는 것이 낫다.

## 그래도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일정상 연말 혹은 연초에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 약관대출부터 확인해 보자. 현재는 은행 가산금리가 높아도 너무 높다. 이건 사실 당연한 이치다. 정부가 대출 공급량을 줄여 놔기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라도 높여야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이다.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사나 신협, 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은 여력이 있다. 보험사에 따라 3%대 초반의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일단은 보험사 문부터 두드리는 것을 추천한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내놓고 영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곳들이 분명 있다.

토스, 핀다 등 핀테크 기업을 통해 대출을 조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곳들은 주로 마이너 은행 위주로 안내하는데, 1금융권 지방 은행은 지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 주변에도 10~11월에 광주은행 등 지방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다. 대출 상담사도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간혹 대부업 등으로 유도하는 질 나쁜 상담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열심히 하는 대출 상담사도 없지 않다.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상담사인지를 확인한 후 조건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은행 우대 고객 혜택은 거의 없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주거은행의 문은 한 번쯤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상담하는 은행원에 따라 “당행의 경우 언제쯤 대출 조건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조언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처럼 대출 또한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유리하다.

## 현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수요자들에게는 이제 꼭 고정금리가 유리한 구간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 두고 싶다. 기본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은 대출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금액이 큰데 매해 대출이자 바뀐다면, 특히 대출이자 갑자기 큰 폭으로 늘면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두면 설령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출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신용도에 따라 연 6%대 대출금리를 제안할 때도 있다고 한다. 아무리 금리 인상기라지만 지금은 너무 심하다. 되도록 대출을 안 받는 것이 낫지만, 현재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변동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필자는 지금은 비록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우리를 오랜 기간 괴롭힌 저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구간이며,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겠으나 과거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필자처럼 생각한다면, 지금은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추후 금리가 다시 저점에서 안정화될 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정답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언론에서 변동금리는 너무 위험하다고만 강조한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짚어 두고 싶다.



# 코로나 시대의 극장 그리고 영화

지난 2년 동안 관객을 잃어버린 극장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떻게 진전될지 말이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될 무렵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잠깐 부는 바람이라 생각했다. 심지어 올해 연말쯤이면 괜찮아질 테니 여행은 연말 말에나 가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연말은 2021년 연말까지도 오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생각 이상으로 끈질기고 만만찮은 바 이러스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아직 바이러스와의 공존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도, 코로나19로 인류가 절멸하지 않을 것임은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는 그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필연적인 시행착오이자 불가피한 과도기인 셈이다. 당장 마스크를 벗을 수 없지만 마스크를 쓰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대비는 필요한 것이다.

## 코로나 시대의 극장전

영화계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직격탄을 맞았다. 영화관 풍경이 쓸렁하기 짝이 없다. 한 해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만 봐도 피부로 느껴진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2019년에는 2억 2,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지만 2020년에는 5,9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1억 명 미만의 관객을 동원한 건 2004년 이후로 2020년이 처음이며 심지어 6,9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던 2004년보다도 낮은 기록이다. 이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극장 통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2020년 극장 매출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1.4%나 감소한 상황이다. 그나마 2021년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11월 기준으로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매출이 상승했고 남은 12월은 기대할 만한 대작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극장가 역시 그 영향권 내에 있다. 지난 11월까지 5,0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극장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2월에는 할리우드 대작들과 스타 배우들이 출연한 한국 영화들이 개봉해 극장가로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다. 덕분에 2020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은 조금이나마 극장가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 위드 코로나 시대의 극장전

극장가로 관객을 유인할 기대작들이 위드 코로나 이후 시점에 연이어 개봉을 확정하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큰 자본을 들여 만든 대작의 흥행을 위해선 관객이 필요하다. 2020년 2월 이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할리우드 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테넷>과 DC코믹스 시리즈 중 하나인 <원더 우먼 1984>뿐이었다. 둘 다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나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반도> <#살아있다> <담보> <삼진그룹 영화토익반> 등 몇몇 한국 영화가 기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극장가의 활기를 되살릴 동력이 모이긴 역부족이었다. 2021년의 극장가는 확실히 양상이 다르다.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블랙 위도우> <007 노 타임 투 다이> 등 화제작으로 분류되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블록버스터가 연이어 개봉하며 극장가로 꾸준히 관객을 불러들였다. 관객 수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건 아니지만 대작들이 거듭 개봉하며 극장의 존재감을 거듭 환기시켰다. 2020년 2월 이후로 1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외화가 <테넷>

단 한 편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11편이나 된다.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의 개봉은 더디지만 지난 7월에 개봉한 <모가디슈>가 3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지난 11월까지 올해 최다 관객을 동원한 작품에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거리 두기 단계가 심각하게 조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극장 관객 수 월별 추이를 보면 7월 이후로 500만 명 이상의 관객 수가 유지되고 있다. 화제성 있는 신작 공급만 원활해지면 예년만큼 회복될 것이라 장담할 순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관객의 발길을 극장으로 돌릴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12월 극장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찾아온 2년여 만의 대목이 될지도 모른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극장전

코로나19 이후로 극장을 찾지 못한 관객들의 갈증을 달랜 가장 큰 오아시스는 아마 OTT 서비스였을 것이다. 그만큼 OTT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주라 할 수 있는 만큼 극장 산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올랐다.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한 넷플릭스와 개성이 뚜렷한 자회사의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한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OTT 서비스는 나날이 시장성을 넓혀 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유행 이후로 극장 개봉을 미루던 몇몇 영화가 극장 대신 넷플릭스 공개를 선택하며 새로운 전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OTT 서비스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 경우도 있었는데 <블랙 위도우>의 주연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대표적이다.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의 제작사인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블랙 위도우>를 극장 상영과 함께 디즈니플

러스에 공개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90일간의 극장 개봉을 보전하고 흥행에 따른 러닝 개런티 계약을 한 상황에서 디즈니플러스에 영화를 공개하며 극장 흥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인썸니아> 이후로 <테넷>까지, 그 사이에 연출한 9편의 영화를 모두 워너 브라더스에서 배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새롭게 제작에 착수한 차기작 배급을 유니버설 픽처스에 맡기기로 했다. <테넷> 개봉 당시 일찍이 예고했던 개봉일을 준수하고자 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개봉일을 연기하고자 했던 워너 브라더스의 갈등이 OTT 서비스를 통해 폭발한 것이다. <테넷>의 극장 개봉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던 워너 브라더스는 자사의 OTT 서비스 HBO 맥스로 이를 공개하기로 했고,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한 놀란 감독이 결국 워너 브라더스와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대중성을 확보한 OTT 서비스는 팬데믹으로 인해 보다 강력한 미디어 채널로 부상했다. 새롭게 국내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외에도 HBO맥스의 국내 론칭도 가시화됐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바야흐로 OTT 춘추전국시대다. 이는 극장의 위기 같지만 오히려 기회다. 다양한 OTT 서비스는 당장은 아니라도 소모적인 채널 경쟁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수급 경쟁은 파편화된 콘텐츠 시청을 위한 플랫폼 구독의 피로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결국 콘텐츠 경쟁력의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스크린과 뽕뽕한 사운드로 무장한 극장은 재평가의 가능성이 다분하다. 무엇보다도 답답한 코로나 시대에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이들에게 영화란 온전히 다른 감각일 것이다. 그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엔터테인먼트랄까. 그렇게 영화는 돌아올 것이다.

Health Infographics

#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부위, 무릎 건강 이야기

초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김장'을 할 때 쪼그려 앉는 자세가 원인으로 무릎 관절에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쌀쌀한 날씨로 근육과 인대가 굳어 있기에 더욱 손상되기 쉬워 관리가 필요하다.

## 반월상 연골 파열

- 정의** 넓다리뼈와 정강뼈 고평부 사이에 있는 반달 모양의 연골 파열
- 원인** 외부 힘에 의해 무릎관절이 뒤틀리거나 전후좌우로 심하게 꺾이는 경우
- 증상** 무릎 통증 및 부종,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잠김 현상 등
- 치료** 심각할 경우 수술 치료, 손상이 작을 경우 보존적 치료, 봉약침 치료 등

## 무릎 연골 연화증

- 정의** 칼슘 퇴적물이 힘줄에 침윤되는 '석회화'를 동반한 건의 염증
- 원인** 무릎뼈의 탈구, 스포츠 외상, 류머티즘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
- 증상** 무릎 앞쪽이 빠근한 통증, 무릎이 빠지거나 뻣뻣한 느낌, 부어오름 등
- 치료** 강화 운동 및 스트레칭, 방사선 촬영 및 관절 면 진단 후 수술

## 추벽증후군

- 정의** 무릎 연골 주변의 막이 단단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 원인** 외상이나 충격 등으로 무릎관절 손상, 과도한 운동 등 무릎관절의 반복적 사용
- 증상** 삐걱삐걱하는 염발음을 동반하는 무릎 통증, 무릎의 운동 제한 등
-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근력 강화 운동, 추벽제거술 등

## 무릎점액낭염

- 정의**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 주머니인 점액낭 부위의 염증 발생
- 원인** 무리한 운동이나 관절의 반복적 사용, 바닥에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는 경우
- 증상** 발생 부위가 별경고 열이 나는 증상, 통증, 부어오름, 운동 범위 감소 등
- 치료** 항생제 치료, 냉찜질, 진통소염제 투약,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등

Healthy Guide

#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

좌식 생활 습관과 비만, 무릎에 무리를 주는 행동 등은 무릎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운동은 가장 좋은 치료 중 하나로 통증 완화뿐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도 유지할 수 있다.

## 무릎 관절 부담 덜고 건강에 도움 주는 운동



### Healthy Guide 01 올바른 자세로 자전거 타기

페달에 발을 올린 상태에서 무릎이 30° 정도 굽혀진 자세로 맞춰서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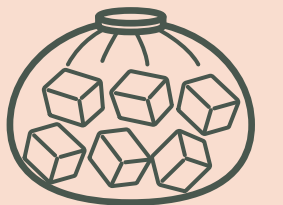


### Healthy Guide 02 가장 간편한 운동 무릎 스트레칭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꺾고 눌러 주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 효과 발생.



## 무릎 통증 시 피해야 할 일



### Healthy Guide 03 온찜질 말고 냉찜질

무릎 통증이 발생하고 처음 48~72시간 동안에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이 좋다.



### Healthy Guide 04 몸에 맞지 않는 신발 피하기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은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 무릎관절을 지키는 좋은 생활 습관

- 오래 서 있을 경우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허리를 굽게 펴 등받이에 댄다.
- 바닥에 앉을 경우에는 등을 벽에 기대거나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계단에 두 발을 모았다가 다음 계단을 내딛는다.



			의	무	관		10	년	의			
특	별	한	경	험	,	아	프	가	니	스	탄	
		어	린	이	를	진	료	하	다			



2021년 8월 27일 교정본부 의료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약 400명이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되어 있는데 그중에 10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다고 하였다. 격리 기간 2주 동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병원 진료를 나갈 수 없기에 그동안 그 어린이들을 진료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내가 적임자라고 하였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나 법무부에서 관심이 많고, 나도 국내외 의료봉사를 많이 하였기에 아프간 어린이라는 특별한 환자들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8월 30일 오전에 대구에서 진천까지 220km를 운전하여 인재개발원에 도착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진료를 위한 의료팀이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다. 현직 내과 군의관 2명, 법무부 소속 공중보건교의 2명, 그리고 국군 간호장교와 교정본부 산하의 간호사 교도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고, 구급차도 상시 대기하고 있었다. 개발원 외부 곳곳에는 진천군민들이 아프간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영어와 아랍어로 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도착 첫날 내과 군의관과 간호장교 그리고 아프간어 통역을 대동하고 진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방을 일일이 방문하였다. 이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도 있었기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레벨 D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을 하였다.

통역이 환자가 있는 방을 노크하니 가족들이 문 앞으로 몰려왔다. 내가 처음으로 대하는 아프간 사람들이었다. 통역이 어른들과 이야기 하는 동안 아이들이 신기한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루종일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외부인의 방문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주로 감기 증상이 많았다. 내가 통역사를 통하여 기침, 열, 콧물 등이 있는지,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나

타났는지를 물어보고 핸드폰의 라이트를 이용하여 입속을 살펴보았다. 약을 처방하고 행어 열이나 기침이 심해지면 연락하라고 하였다. 방호복을 입고 있었기에 청진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 매우 불편하였다.

특별기여자 중에는 의사, 치과의사, 외교관 등 그 나라의 상류층도 있었지만 아프간 주재 우리나라 기관의 식당이나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프간어 통역을 통하여 증상을 묻고 설명을 하다 보니 어린이 한 명을 진료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8월 말경이라 아직도 더운 날씨여서 방호복을 입고 10여 명을 진료하는 동안 몸은 땀으로 흥건히 적셔졌다.

특히 아프간은 이슬람 국가이므로 남자가 여자의 몸을 직접 볼 수 없기에 여자 어린이의 다리에 생긴 피부 질환도 남자 의사인 내가 직접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여자 간호장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내가 사진으로 보고 진찰을 해야 하는 해프닝도 생겼다. 그중에는 소아과 환자 이외에 임신부도 있었고, 출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산후조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 외에 심장병과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다.

진천 개발원에서 계속 도시락으로 세끼 밥을 먹고 교육생들이 자는 방에서 잠을 자며 주말까지 보냈다. 소아 환자가 많지 않았으나 아프간과 한국의 기후 차이로 감기 증상이 많았고 때로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도 있었다.

금요일까지 진료를 마치고 청송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2주 격리 중 아직 1주일만 남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린이 진료를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의료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충청북도 의사회장과 진천군 혁신도시의 소아청소년과 개원 원장과 접촉을 하여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문제가 생기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해주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주었다.

나의 자발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왕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과분한 격려의 말을 들었다.

나름대로 아프간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탈출한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만일 이들과 같은 상황이 되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섬뜩하였다. 그러나 내가 만난 아프간 사람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아 보였다. 지긋지긋한 전쟁터를 벗어났다는 안도감일지, 아니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다는 기대감일지?

TV에 나오는 황량한 산악지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이외에 솔직히 아프간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아프간 사람들을 진료하게 되었으니 의무관 10년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프리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 아프간 어린이를 진료함으로써 그 세 곳 모두 인연을 맺게 되었다.

2003년 5월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시기에 범의료계 이라크 의료봉사단의 단장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 10일 동안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인천에서 두바이와 요르단 수도 암만을 거쳐 시리아 사막 950km를 차량을 이용하여 바그다드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다. 그 위험하고 먼 길을 겁도 없이 가다니, 용기인지 어리석음이었는지?

이라크 의료봉사를 turning point로 조금은 봉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04년에는 '원장 없어 발 동동'이라는 신문 기사를 보고 6개월이나 공석으로 있던 울릉군보건의료원장에 자원하여 동쪽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울릉도에서 4년을 살았고, 정년퇴임 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에서의

료봉사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12월이면 청송의 의무관으로 10년이 된다. 비록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지난 18년 동안 전형적인 의사의 길을 벗어나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살았다. 더 보람 있고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그리고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인류에 봉사하는 성인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즐겁게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여유나 여력이 생겼을 때 봉사적인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생활 속의 봉사, 그리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남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해주자는 것이 나의 생활철학이다. 수입이 많고 빛나는 자리에는 의사들이 넘쳐나고 낙도나 교도소 같은 어렵고 힘든 곳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나는 이번에 의무관 근무 10년 만에 뜻하지 않게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진료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이라크를 포함한 3대 위험지역 사람들을 진료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화려하고 빛나지 않더라도 봉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의사로 남고 싶다.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위하여.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저	의	진	심	어	린	반	성	이
		피	해	자	분	들	께	
		당	기	를	기	원	합	니
								다

**f** 저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김○○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후 수용자 종합 문예지인 <새길>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덕에 뒤숭숭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기도 했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긍정적으로 계획하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다는 걸 듣고 바로 펜을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필력이지만 진심을 담아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f** 저는 부족함 없는 화목하고 긍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품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많은 걸 배웠고, 초등학교 시절엔 반장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나아가 6학년 때는 전교 회장까지 지내면서 착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짧은 방학의 시간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지만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습니다.

**f** 평범하지 않은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22세 때였습니다. 동네 형의 권유로 불법인 지도 모른 채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인터넷 사기였습니다. 해선 안 될 범죄란 걸 알았지만, 그 당시 많은 월급을 준다는 말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저의 그 알팍한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뎠어져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범죄를 바로 제가 저지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몰랐기에 용감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f** 그리고 전 구속 직전까지 광고대행사를 운영했습니다. 인터넷 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 치고 도망가서 숨는 꼴이라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지만 광고업을 하고선 고객들의 매출이 오르고 감사하던 말 한마디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부심도 느끼고 즐기다 보니 결과는 저절로 따라왔고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의 돈보다 많은 금액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던 제가 더욱 미웠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두 번 다시 법에 위반되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합니다.

**f** 수용 생활을 하며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든 있을 때, 현재 주어졌을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사소한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만들더군요. 지금껏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특히 못한 저 때문에 사회에서 같이 마음의 벌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출소 후에는 사소한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f** 저는 많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지금 돌이켜 봐도 정말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서 가장 높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풍이기에 많은 반성으로 역풍을 딛고 높이 날아오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반성이 조금이라도 피해자분들께 당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②

인치견\*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출소자의 정의
  - 2.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이해
  - 3. 관계변수에 관한 정의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1.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요소
  - 2.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 1. 연구의 논의
  - 2. 교정사회복지 실천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Tel: 010-8289-9519 E-mail: mail24@korea.kr)

## II. 이론적 배경

### 3. 관련 변수에 관한 정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인성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출소한 후에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최종까지 6명의 심층면접이 가능했고 이들로부터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요 관련 변수를 도출했다. 즉 출소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수용시설과는 다른 사회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사회복귀경험과 동시에 차별감, 낙인감, 편견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관념 속에서도 출소자들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회복귀의 성공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귀경험

사회복귀(rehabilitation)는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바람직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정시설의 구금 생활이나 장기간의 질병이 끝난 후와 같은 경우이다(Judy Pearsall & Bill Truble, 1995). ‘사회복귀’라는 용어는 본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병사들 중 부상자들의 회복과 관련해 의학적 분야에서 사용했는데, 교정 분야에서도 수형자들이 출소한 일반적인 시민의 모습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의미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 2) 낙인감

낙인(stigma)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양이 새겨진 다리미 혹은 침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신체 부위에 걸로 드러나도록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Goffman, 1990). 포겔(Vogel)은 낙인감의 개념에 관해 사회적 낙인이 내재화돼 자기 낙인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낙인감이란 ‘저소득층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진단에 따라 스스로를 열등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3) 차별감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나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대해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그리고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특정인이나 특정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차별을 받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회집단에게는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완전한 참여의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 4) 편견

편견(prejudice)에 대해 셰리프 등(Sherif et al., 1961)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태도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동반한다”고 했다. 특히 편견은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상대방이나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처리 과정 없이 적대감이나 혐오 등의 부정적 정서를 동반해 상대를 한쪽으로 치우쳐 평가하고, 또한 이를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적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단 간 갈등은 편견의 작용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편견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적 과정(편향된 정보 수집이나 처리, 회상 등)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이 포함된(좋다 혹은 싫다 등) 정서적 측면(주로 부정적)도 동반한다. 편견은 차별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은 그 집단과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을 대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의 작용을 통해 차별 대우를 야기한다. 출소자들에 대한 차별과 함께 편견도 그들의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 5)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resiliere’에서 파생된 것으로 원래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적 용어이다.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며 이는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는 역동적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회복탄력성은 외부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능력 혹은 물질의 유연함을 뜻하며, 채프만(Chapman)은 회복탄력성에 관한 자신의 저서에서 그 의미를 어려움에서 적응적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튀어 오르는 성장을 뜻하는 의미인 ‘탄력성’을 합쳐서 ‘회복탄력성’이라고 주장했다. 혹은 회복탄력성을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라고도 한다(김주환, 2011). 따라서 회복적 탄력성은 출소자가 사회에 복귀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과 부정적 감정을 저항력을 갖고 극복해 가는 과정 또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 방법

지오르지(Giorgi)<sup>1)</sup>는 현상학을 인간과 사물을 연구하는 인문과학으로 자리매김시켰으며, 현상에 대해 인간과학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사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4단계로 나누어 연구하는 방법을 주장했는데, 1단계는 “전체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기술내용 읽기”, 2단계는 “기술 내용을 의미단위로 나누기”, 3단계는 “의미단위를 가장 근접한 학문적 표현으로 변형하기”, 그리고 4단계는 “전환된 의미단위를 구조로 통합하기”로 구분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에서 형기 동안 생활하다가 형을 종료하고 출소한 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과 이러한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혹은 사회적인 도움으로 회복하는 과정, 즉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명의 출소자들에 대해 지오르지

1) 지오르지(1871~1950)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로서 현상학파에 속하며,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해 심층적, 질적 분석을 시도했다. 즉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출소 후 1년 6개월 이상 된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인터뷰)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6명의 연구 참여자를 확정했다.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시간은 출소자 개인별로 각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최소 3회 이상 실시했다. 상담의 시작은 참여자와 미리 상의해 결정했고, 마치는 시간도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고, 참여자들의 동의서를 받았으며,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와 마음의 준비가 형성된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보완 질문이나 인터뷰 내용의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통해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한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지오르지가 제시한 4단계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내포된 현상학의 원리와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전체 경험을 통합해 개인의 독특성을 살리고 출소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의 구조를 기술했다. 또한 그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경제수준 등의 다양함도 개별적인 심층연구를 통해 그들의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적용됐다.

## IV.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를 심층 인터뷰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서 겪은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내용과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적용했다. 출소자가 사회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적응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지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과정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출소 후 1년 6개월 이상 된 1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인터뷰와 심층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로 끝까지 참여한 6명을 대상으로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과정을 인터뷰를 통해 이끌어 내었으며 이러한 경험들을 124개의 의미단위와 34개의 하위 구성요소, 13개의 구성요소로 분류·통합해 분석했다.

### 1.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요소

본 연구는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출소자들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은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의 경험과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회복돼가는 경험(회복탄력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과 인터뷰한 녹취록을 반복해 듣고 읽으면서 전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 표는 출소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현상학적 방법에 의해 13개의 구성요소와 124개의 의미단위로 구분해 정리한 것이다. 또한 표와 함께 13개의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 1) 행복 없는 어린 시절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쁨보다는 슬프고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다시 말해 자라면서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날보다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보낸 기억이 더 많이 생각난다고 했다.

#### 2) 준비 없는 출소

연구 참여자들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막막한 심정으로 출소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날을 기다린다. 담 안에서 달려 출소날짜를 적어두고 하루하루를 지워가며 어렵고 슬픈 기억밖에 없었던 지난날, 경찰서에서 검찰로 법원으로, 구치소에서 포승으로 공공 목인 채 많은 사람들로 부터 눈총을 받으며 구속되던 날들을 뒤로 한 채, 마지막으로 이제 실오라기 같은 희망의 빛줄기가 있음을 알기에 몇 날 밤을 지새우며 출소 후 새롭게 살아보려는 마음가짐으로 자유의 날개를 퍼덕일 준비를 하고 있다.

#### 3) 막막한 사회로의 복귀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하면 어떻게든 가족에게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활동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

〈표〉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요소

의미단위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의 잘못된 경제관념을 보고 성장함</li> <li>• 외도로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아버지</li> <li>• 술을 먹고 폭언으로 피로를 가족한테 푸는 아버지</li> <li>• 가정환경 영향으로 불량한 청소년 시절을 보냄</li> </ul>	1 행복 없는 어린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소 계획은 막연한 계획뿐이다</li> <li>• 출소를 준비하는 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li> <li>• 출소 후 준비를 하는데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함</li> <li>• 출소 후 돈을 벌 수단으로 도시락 관련 공부를 하다가 막연히 여러 개의 자격증을 따</li> </ul>	2 준비 없는 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출소함</li> <li>• 교도소에서 힘들었던 일을 담배 연기로 날리니 기분 좋음</li> <li>• 출소는 자유와 기쁨을 준다(해방감)</li> <li>• 출소 후 기분이 좋아짐</li> </ul>	3 막막한 사회로의 복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비교하다 보니 자존심이 저하되고 친구 관계가 멀어짐</li> <li>• 친구 관계가 점점 단절됨</li> <li>• 여러 번의 구속으로 친구들과 친밀감이 줄어든 관계 유지</li> <li>• 친구들의 위로가 그리움</li> <li>• 전자발찌 때문에 모임(관계)에 참석하기가 어렵다</li> </ul>	4 다가서지 못하는 친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두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범을 함</li> <li>• 주변 지인의 비아냥거림을 못 견뎌</li> <li>• 사회 재적응 실패가 다시 범죄로 이어짐</li> <li>• 해결하지 못한 부채가 다시 돈을 빌리게 함으로 또 범죄로 이어짐</li> <li>• 잘못된 경제관념이 다시 재범으로 이어짐</li> </ul>	5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남</li> <li>•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두려움</li> <li>•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축되는 마음이 큼</li> <li>• 누가 물어봤을 때 왜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움</li> <li>• 신상정보공개 고지로 인한 고통</li> <li>• 전자발찌라는 족쇄가 발갸이 될까 봐 지레 겁이 나고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음</li> <li>• 출소 후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게 됨</li> <li>• 초대받은 여동생 상견례에도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참석을 꺼림</li> <li>• 전자발찌를 찬 나는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li> <li>• 마음 내면에 내 모습이 죄인으로 보인다는 피해의식이 있음</li> <li>• 전과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고 결국 그 걱정을 술로 해결</li> </ul>	6 마음에 자리 잡은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좋아하는 반바지를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입지 못하는 습관으로 바뀜</li> <li>• 전자발찌 차는 순간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과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li> <li>• 운동을 할 때도 발찌가 밖으로 나올까 봐 숨기느라 마음껏 운동도 못함</li> <li>• 전자발찌를 토시로 감추고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두려움</li> <li>• 신상공개에 대한 우편고지 때문에 동네에 나가서 활동하기 어렵고 괴로움</li> <li>• 여름에 반바지를 못 입으니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는 것 같음</li> <li>• 좋아하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전자발찌 때문에</li> <li>• 성범죄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움</li> <li>• 성범죄자에게 주는 보안처분에 대해 차별감을 느낌</li> <li>•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사람답게 못 살게 하는 악법</li> <li>• 전과 기록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힘들</li> <li>• 직장 사장이 전과자라고 내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답답하고 힘들</li> <li>•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복직 희망이 깨짐</li> </ul>	7 법이 주는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함없는 가족들의 사랑이 소중하게 느껴짐</li> <li>• 가족들이 모두 나를 걱정해 주는 것이 고마움</li> <li>• 가족들의 지지와 걱정이 교도소에서의 힘들었던 삶을 버티게 함</li> </ul>	8 다시 가족의 자리로

\*34개의 하위 구성요소는 표에서 생략함.

의미단위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속 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격려와 힘 때문임</li> <li>• 가족이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어 견딜</li> <li>• 내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곁에 가족이 있어 다시 생각을 바로잡게 됨</li> <li>• 출소 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워짐</li> <li>•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힘이 됨</li> <li>•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됨</li> <li>• 출소 후 가족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서 만족함</li> <li>• 내가 집의 가장(중심)이라는 생각이 들</li> </ul>	8 다시 가족의 자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소 후 남편과 재결합을 원함</li> <li>•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하면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li> <li>• 출소 후에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술 대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선택할 것임</li> <li>• 출소 후 동생들과 다시 관계 개선을 해 보려고 함</li> <li>•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함</li> <li>• 나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가족이 고마움</li> <li>• 구속되고 보니 아내가 애쓰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고마움</li> </ul>	9 회복을 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교(천주교)는 기댈 수 있는 힘</li> <li>• 불교는 '앉아 있는 곳'이 수행의 장소이고 마음의 평화를 줌</li> <li>• 거실에서 틈틈이 반야심경을 암송(특히 다라니 주문)함</li> <li>• 천주교는 마음의 의지가 되며 종교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감</li> <li>• 개인적으로 새벽과 취침 전에 기도생활이 습관이 됨</li> <li>• 거실에서 혼자 미사용(천주교) 책을 보고 있음</li> <li>•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동기가 신앙이라고 생각함</li> <li>• 종교생활을 통해 위로와 안정을 얻음</li> <li>• 구속된 후 삶의 중심에 신앙생활이 자리 잡게 됨</li> <li>• 자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됨</li> <li>• 고해성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눈물로써 용서를 받</li> <li>• 출소하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함</li> <li>• 아내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됨</li> <li>• 항상 '내 탓이오'를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음</li> </ul>	10 신앙 생활로 견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핸드폰으로 보는 음란물 자제하기를 결심함</li> <li>• 더 이상 술로 죄짓지 않기 위해 술을 끊음</li> <li>• 성장의지가 있는 출소 동기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함</li> <li>•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힘이 됨(단주 모임)</li> <li>•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음</li> <li>• 죄를 반성하며 죄짓지 말자고 다짐함</li> <li>• 독서로 마음의 안정을 찾음</li> <li>•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며 마음의 답답함 해소</li> </ul>	11 옴트는 회복 탄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소 후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li> <li>• 출소 후 막막한 심정을 줄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함</li> <li>• 자격증 취득 후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함</li> <li>• 출소 후 실습할 수 있도록 연계 교육이 필요</li> <li>• 보안처분의 관리가 통합되기를 바람</li> <li>• 전자발찌가 더 작아져서 불편감이 줄어들게 되기를 바람</li> </ul>	12 작은 바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의 익숙한 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됨</li> <li>• 취업제한으로 가로막힌 담도 뛰어넘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음</li> <li>• 살아남기 위해 하루 12시간 일함</li> <li>• 말보다는 경제적 능력으로 형의 권위를 찾고 싶음</li> <li>• 왜곡된 생각 바꾸기</li> <li>• 독서를 통해 마음의 안정 찾기</li> <li>• 가족지 않고 원만한 인간관계 맺기 노력</li> <li>• 지금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li> <li>•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보호관찰소가 도움이 됨</li> </ul>	13 다시 일어서기

을 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으로 인해 고생하고 힘들어했을 가족에 대한 격정과 미안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했다.

#### 4) 다가서지 못하는 친구와의 관계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 1명만 있으면 인생을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인처럼 단지 겉으로만 화기애애하고 기뻐하는 친구가 아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신을 진실 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 주며, 기뻐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프면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 주고 나를 위해 정말로 충고해 주거나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그립다.

#### 5)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감

연구 참여자들은 교도소에 구금되는 순간 사회의 일상적 삶이 중단된다. 이것은 사회와의 단절이나 소외 정도 이상으로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교정의 본래 의미는 이들이 최초 생활했던 일상적 삶의 방식을 회복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즉 그들의 삶에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도소 공간을 사회와 단절시키는 것으로 속단하고 그들로 해금 그것을 알게 모르게 인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정의 최고 가치를 실현한다면서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외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출소 전 자존감 훈련을 강화하고 스스로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6) 마음에 자리 잡은 편견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했지만 단절된 사회와의 거리를 통해 과거에 자신과 유지했던 관계가 다 없어지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편견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러한 편견의 싹이 마음 한 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하며 어느덧 마음에 동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7) 법이 주는 차별

연구 참여자들은 출소 후 구직활동에 나서지만 구

속 전 과거 직업으로의 복귀는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성 관련 전자발찌 부착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나 범인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기간외출 제한 등의 제도적인 장벽과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통제된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타인에게 알려질까 봐 순간 순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간다고 한다. 혹시나 타인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당하지나 않을까, 조그만 실수도 안 하려고 두려움과 조바심 속에서 생활한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더욱더 조심하고 마음을 졸이다 보니 스스로 법에 대한 원망과 출소 후에 또 다른 감옥에서 생활하는 심정이다.

#### 8) 다시 가족의 자리로

연구 참여자들은 기나긴 구금생활로 인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족이나 형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 출소자들은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회복을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자신을 짐처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긴다.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출소자들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 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다시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시 교도소로 향하게 된다.

#### 9) 회복을 향해

연구 참여자들은 수용생활의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면 할수록 과거의 발목에 사로잡혀 괴롭게 생활했다고 말하면서 지난날을 회상한다. 세상의 쓰레기 들 가운데 끼여 맘을 뺨뺨 흘리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나의 추락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부정하게 번돈으로 흥청망청 생활하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스러웠다.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교육은 내가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척하는 나의 위선을 중단시켰다. 이제 더는 숨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앞으로 움직여야 했다.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자신이 놓인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0) 신앙생활로 견딜

연구 참여자들은 범죄를 저질렀던 지나온 시간들을

반성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견디고 있었다. 또한 교정시설에 있는 동안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집회(예배, 법회, 미사)와 교리 공부, 자매결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종교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초월적 힘, 신성, 그리고 진리 등 인간 생활에 의미를 주며 연구 참여자들도 구속 수감으로 인한 인간의 한계와 출소 후의 두려움 등으로 절대 무한의 영적 실재를 추구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 11) 옴트는 회복탄력성

연구 참여자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물을 때면 재소자의 일반적인 답변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은 '적응'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재수용자들은 모두가 자신들은 과거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일이든지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고, 당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가진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12) 작은 바람들

연구 참여자들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해서는 재소자들의 가정, 특히 자녀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출소 후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과 배우자 및 자녀와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교도소 내에서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된 수용생활을 통해 수용돼 있는 동안 각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출소하게 되면 그나마 작은 소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 13) 다시 일어서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수용돼 있는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 충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감사하면서 갠다고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밖에서 저지른 성폭력과 마약, 사기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것이다. 전에

동료들 간에 말다툼으로 코빠가 골절됐던 수용자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신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돼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기분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계기가 돼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 2. 연구 결과

연구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출소자들을 사회적으로 적절히 수용하고 갱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하다. 즉 전과자들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취업 및 창업지원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출소자 사회복귀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교정시설에 복역 중일 때 취업을 알선하게 되면 출소 후 적절한 취업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재범예방에 효과적이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소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특히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소원함은 개인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했던 가족 및 친지들이 거리를 둠으로써 가족 지지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넷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다. 상습적인 범죄로 수용생활을 반복한 출소자는 잦은 수용생활로 인해 스스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없었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전과자라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낮다 보니, 대부분이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렵다.

다섯째, 출소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전과자는 일정한 주기가 없거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과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진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전과자들의 사회복귀 문제는 더욱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수용자들의 출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들을 연계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교정사회복지 영역이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서 확고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는 실정이므로, 교정사회복지의 실천 면에서 출소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는 수용자가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거쳐 수집하고,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경험을 이해하고,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낙인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와 관련된 우편고지의 두려움과 활동의 제약, 그리고 주로 성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에 대한 차별, 전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뒤흔치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편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과거 결손가정 또는 올바르지 않은 양육과정, 개인의 성격적 특성 등으로 반사회적인 성격이 형성되기도 했고, 수용생활 기간에는 교화 개선이 아닌 잦은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 형성의 영향으로 출소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다. 그리고 출소 후 3개월은 짧은 기간이지만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의 정착과 성공 여부가 평가되고 판가름이 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 따라서 출소 후 3개월간의 사회복귀 단계 과정은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1단계는 교정시설 내

교정교화단계, 제2단계는 교정시설 내 출소 전 준비 단계, 제3단계는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제4단계는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로 구분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소자의 사회복귀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3단계로서 출소 후 보통 3개월까지가 이에 해당하며, 재범자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출소 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사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낙인감, 차별감 및 편견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 1) 교정시설 내 교정교화 단계

수용자에게 형기 기간 동안 적절한 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하고, 또한 습관적으로 왜곡돼 있는 본인의 모습을 인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형기 기간에 한해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가장 바람직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출소 후를 대비한 수용자의 행동변화와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교정시설 내 출소 전 준비 단계

수용자의 출소 전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시행 시 출소자들의 사정을 참작해 다수의 수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오랜 수용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게 되면서 출소자에게는 한 가닥 희망으로 여겨왔던 삶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심리적 부담이 따른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 중 전자발찌 부착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자포자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 하는 동안 끊임없이 가족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 시행함이 필요하다.

#### 3) 지역사회로의 전환단계

수용자가 출소 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가족의 따뜻한 품이 될 것이며, 이는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출소 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고리가 형성되면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가족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 출소 후 종종 사회에 적응을 못해 문제가 표출된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상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돼 있으면 이를 포용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 행동도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며 가족들이 격려해 주고 자존심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족관계의 회복은 성공적인 사회복귀 단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패하면 대개는 다시 재범으로 나아가게 된다.

#### 4) 출소 후 사회복귀 단계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는 수용생활 하는 동안 억눌렸던 교도소 환경과 생활의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교도소에서는 교도관의 지시만 따르면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던 수동적인 생활이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소자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출소자들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제4단계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취업 과정에서 ‘전과’ 및 ‘범죄경력’이 밝혀질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출소자들 가운데 90% 이상은 단순노동이나 생산기능직 혹은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을뿐더러 채용 시에 신원보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과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자리를 구한 대부분의 사람은 전과 전력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나, 취업 후에도 만약 자신의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2. 교정사회복지 실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소자 자신의 갱생하려는 의지와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출소자들을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반 사회인들의 포용 자세가 필요하다. 출소자가 갱생하려는 의지를 갖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이들을 냉대한다거나 사회 내에 출소자들을 수용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출소자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사회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사회 내에 출소자들을 수용할 여건이나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이해와 참여가 없다면,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로서 출소자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낙인감, 차별감, 편견 및 회복탄력성을 연관 변수의 분석을 통해 밝힌 질적 연구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서 교정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중에서 출소 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나, 중도에서 6명이 탈락해 최종적으로 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비확률적 표집방법으로 소수의 출소자들을 표집해 이론을 적용했으므로,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전체 출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표본 대표성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종단연구(longitudinal design),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및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을 실시해 연구를 진행했으므로 횡단연구, 설문조사 등 일반적인 연구 방법과는 다른 연구 방법의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에 대한 변수로 낙인감, 차별감, 편견 및 회복탄력성의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변수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경험을 온전히 함축해 안정된 사회복귀를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교정인성교육원,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 제2회 컨퍼런스 논문 모집공고

법무부 사)사회망교화센터 부설 한국교정인성교육원과 한국교정인성교육학회는 공동 주최로 “Covid-19 언택트 상황 속에서 온택트(Ontact)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제2회 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를 앞두고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를 안내합니다.

**논문 내용 및 범위** : 인성교육에 관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논문  
**온라인 논문 접수 기한**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마감  
**온라인 논문 분량** : 10포인트 25페이지 이내 (별첨 논문작성 지침 및 예시 안내)  
**문의 및 접수** : 사무국장 신미자 010-2458-0675  
**이메일** : mishin345@hanmail.net

※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사회망교화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를 거쳐 소정의 원고료와 우수논문 상상이 있으며 학회지에 실리게 됩니다. 한국교정인성논문총 학술식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 법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정 NEWS

교정 12월호

## 제2회 전국 지방교정청장 회의 개최



**일시·장소** 11. 5.(금) 14:00, 교정본부 회의실  
**참석자** 교정본부장, 각 지방교정청장, 교정연수부장  
 ※ 배석: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회의 주제** 현안 논의 및 애로사항 건의 등

## 2021년 APCCA 실무자 웹 세미나 참가



**일시·장소** 11. 18.(목) 11:00, 교화방송센터  
**회의 방법** 줌(Zoom) 시스템을 통한 영상회의  
**발표 주제**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 및 주요 정책 등  
**참석자** (교정본부) 교감 박정호, 교위 권유진(발표)  
 (외국) 호주, 인도네시아, 마카오, 베트남 4개국 실무자  
 ※ APCCA 회원국 중 13개국에 참가해 트랙별(A, B, C) 발표 대한민국-A트랙

## 전국 교정기관 원격영상재판 시연회 개최



**일시** 11. 16.(화) 11:00  
**장소** 법무부, 법원행정처, 서울구치소  
**참석자** 교정본부장 등 5명  
**시연 방법** 교정본부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서울구치소장 영상통화

**전국 교정기관 원격영상재판 시연(11. 18.) 추진 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추진  
**주요 내용** 민사재판에서는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 증인신문 인터넷 화상장치 활용 가능,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등 가능  
 ※ 교정본부 보안과-47119(2021.11.12.)「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추진 계획 시달」

## 교정본부와 (주)하이프라자(LG전자 베스트샵) 업무 협약 체결



**협약 기간** 2021. 10. 15. ~ 2022. 12. 31.  
**주요 내용** 구매 금액의 5% 멤버십포인트 적립(포인트 사용기한 3년) 1인당 최대 50만 포인트 한도 내 적립  
 ※ 최초 구매에 한해 포인트 적립 한도 없이 50만 포인트 이상 적립 가능  
**사용 방법**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원증(교정시설 공무원)을 지참해 전국 LG전자 베스트샵 지점에 직접 방문 구매 시 적용  
 개인사업자 운영 대리점 및 백화점·홈플러스 입점점 제외  
 ※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5255(2021.10.15.)(주)하이프라자(LG전자 베스트샵) 업무 협약 관련 알림」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교정자문위원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1월 24일 교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재임 중인 이수정 교수가 선출됐으며, 최근 교정 현안에 대한 전방위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대통령 표창장 전수식 개최**  
서울구치소는 11월 9일 불우 수용자의 수용 생활 지원 등 교정교화에 노력하는 노춘미 교정위원에 대한 대통령 표창장 및 신규 교정위원 10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강기천 부소장은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교정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수용자 비대면 기독교 집회 실시**  
안양교도소는 11월 9일 수용자 비대면 기독교 집회를 실시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 행사가 전면 중지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실시한 것이다. 이날 기독교 집회는 수용자가 교회당에 모여 지구촌 교회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수원구치소 교정협의회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정 형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위원 및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

으며, 총 1,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불우 수용자가 정 70곳에 전달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임경민**  
**합동 소방훈련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1월 19일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서울동부구치소 자위 소방대 및 수용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진행했으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벽화 완성 기념행사 참석**  
인천구치소는 11월 8일 인천지방법원이 주관한 법원과 구치소 간 출정 호송통로에 그려진 벽화 완성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에 완성된 벽화는 수용자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직원 건강검진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으며, 야간 근무자 특수검진도 동시에 진행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18일 남양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했으며, 필요한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전태수**  
**수능 응시 자녀 응원 행사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1월 16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떡 선물 세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신동운 소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능을 공부한 직원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11월 17일 정부정책 소통과정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대면 교육으로 총무과장 등 부서장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적극행정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11월 1일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가운데 의미 있는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춘천교도소는 11월 10일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혈액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자연보호 봉사활동 실시**  
원주교도소는 11월 4일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자연보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박진홍 소장은 “2050 탄소중립 챌린지 참여와 자연보호 봉사활동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1월 15일 강릉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신 경우 청장은 수용 등 현장 점검을 모두 마친 후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는 11월 17일 법무행정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해 영월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개방형 교도소 운영 상황 및 업무처리 현황과 보안·보호 장비 운영 실태를 참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현우 소장은 “교정시설의 노후가 업무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방문**  
조두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은 11월 18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중앙통제실, 신입실, 수사·변호인접견실, 자치수용동, 위탁작업장 등을 둘러보며 엄

정한 수용 질서 가운데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현장을 확인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1월 23일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를 방문해 보안 현장 및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방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10명은 11월 10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의료 처우를 중심으로 기관 운영 실태 및 시설 참관 등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민영교도소의 운영 성과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동참**  
대구지방교정청은 11월 11일 추모 묵념을 통해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역사홍보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대구교도소는 11월 1일 (前)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을 기관 역사홍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대구교도소는 지난 10월부터 역사홍보 T/F팀을 구성해 10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1월 5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김영식 소장은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직원들에게 고맙고,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했다. 통행의 편의를 위해 구내 복도, 경사로 등에 손잡이와 점자블록 및 점자 촉지판을 설치했으며, 환자 및 고령 수용자가 많은 의료 수용동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직원 격려 커피차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는 11월 19일 직원식당 앞 잔디밭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 극복’ 직원 격려 커피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따뜻한 커피 및 음료, 간식을 제공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수용자 물품 기증

부산교도소는 11월 11일 부산 길상사로부터 컵라면과 영치금을 기증받았다. 길상사 자인스님과 관음회는 수용자를 위한 컵라면 1,300개와 불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수용자 20명에게 전달될 영치금 100만 원을 쾌척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직원 건강검진 실시

포항교도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야간 근무자 특수검진도 동시에 진행했다. 김철민 소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직원들 개개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수능 응시 자녀 응원 행사 개최

진주교도소는 11월 16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최철경 소장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대체복무요원 격려 행사 개최

대구구치소는 11월 26일 코로나19 유행 차단 등 격무에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대체복무요원 42명에게 간식을 지급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합동 소방훈련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17일 가족 만남의 집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의 실제 상황을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대처 능력 점검 및 배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음주운전 제로 기념 캠페인 실시

안동교도소는 11월 15일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 육근우 소장은 “전 직원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과 노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을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음주운전 제로 기록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1월 17일 유관기관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배경석 소장은 “주요 임무를 확실히 숙지해 추후 소방훈련 시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학생 장학금 전달

김천소년교도소는 11월 4일 문성중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천소년교도소 장학사업은 직원 상호회 기금으로 조성됐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회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선물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1월 11일 제광산업 구진섭 회장으로부터 300만 원을 기증받았다. 해당 기금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11월 23일에 ‘2021년 하반기 불우 수용자 미성년 자녀 장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명의 불우 수용자 자녀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됐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울산구치소는 11월 10일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갑질 예방, 적극행정, 정부혁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최재우 소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해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수능 응시 자녀 응원 행사 개최

경주교도소는 11월 4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서보균 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방문 민원인 불편 해소

통영구치소는 11월 23일 외부 정문 앞에 차양 시설을 설치해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 방문 시 출입 전 대기가 길어짐에 따라 악천후 시 민원인의 불편함이 증가했다. 이번 차양 시설 설치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양구치소 / 교위 백지정

성희롱·고충 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밀양구치소는 11월 5일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운영주 소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과 고충 심의위원 활동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11월 1일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된 박창현 공업서기보는 “상주교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2021 아름다운 동행’ 참석

대전지방교정청은 11월 23일 ‘2021 아름다운 동행’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합동결혼식에 참석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봉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합동결혼대상자 인법무보호대상자들의 결혼을 축하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추억 만들기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해 ‘부서별 Fun Fun 추억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부서별 총 18개 팀이 참가했으며,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실현하고, 팀원·부서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등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청주교도소는 11월 15일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직원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독후감 경진대회는 국내·외 소설 및 수필 분야 도서를 읽고 느낀 소감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12월 5일까지 응모 받은 후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11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도주자 체포 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11월 11일 도주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체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 사고 발생 상황에 따른 각 부서 및 개인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실제와 같은 상황을 모의로 연출해 실제 도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교정장비 사용법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하반기 교정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수용자 난동 시 효과적인 수감·포섭·보호대 등 보호장비 사용 방법,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해제 방법, 바디캠·TRS통신장비 사용법 및 가스총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하며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소란·난동 진압 훈련 실시

공주교도소는 11월 16일 수용자의 소란·난동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긴급상황 발생 시 운영하는 지

휘 체계 점검을 위해 소란·난동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란·난동 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정병헌 대전지방교정청장은 11월 16일 충주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순시 및 기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정조원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11월 4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독서의 일상화를 장려하는 하반기 수용자 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편의 작품을 응모 받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11월 10일 기능 전환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정혁신추진단 및 5개 기관이 참석해 시설 참관 후 여성 수용의 특성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여성 친화적 수용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감사나무 설치 실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1월 16일 직장 내 칭찬



및 감사·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식당에 감사 나무를 설치했다. 장승구 소장은 “이번에 설치한 감사나무가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논산지소보건의 감사 인사 방문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1월 18일 논산지소보건의에 방문해 최근 기관 내 확진 수용자 발생으로 인한 심층 역학조사 인력 지원, 생활치료센터 병상 배정 신청 등 지역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남주 소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본연의 업무인 수용자 의료 처우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소속 기관 기동순찰팀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교정청은 11월 23일 소속 기관 9곳의 기동순찰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소속 기관의 기동순찰팀장이 대표로 1명씩 참여했으며, 기동순찰팀의 본연의 업무 및 역할 등 자유롭게 토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 실시

광주교도소는 10월 15일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교도관’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정시설과 수용 생활에 대한 안내 및 교정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절차 등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실시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11월 2일 신규 의무사무관에 대한

###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순천경찰서장 참관 실시

순천교도소는 11월 10일 순천경찰서장의 참관을 진행해 열린 교정행정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했다. 박삼재 소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참관 등을 통해 교정행정의 발전적 모습을 더욱 홍보하고 기관 간 협력 관계를 돈독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1월 17일 목포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신용해 청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노력을 치하했다.

###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학생 장학금 전달

군산교도소 옥정골 보라미 봉사단은 11월 22일 옥구초등학교에 장학금 60만 원을 전달했다. 주광순 교장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장학금이 많이 줄어든 시점에 군산교도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제주교도소는 11월 18일 한국생산성본부 하수회

전임 교수를 초빙해 부서별 대표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신감과 동기를 성취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호선 소장은 “국민의 관점에서 교정행정을 다시 바라보고, 사소한 것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로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을 당부했다.

### 장흥교도소 / 교위 김준환 사랑 나눔 봉사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11월 5일 어려운 환경의 장흥군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냉장고를 기증하며, 지역사회에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중곤 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직원 격려 물품 증정

해남교도소는 11월 10일 의료지원을 다녀온 직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해당 직원은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충북 진천으로 파견돼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 등 감염병 예방 및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가을맞이 사진 콘테스트 종료

정읍교도소에서 실시한 ‘가을맞이 사진 콘테스트’가 11월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복한 직장 만들기’라는 가치 아래 시작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관의 가을 정취를 가장 잘 표현한 사진 11편을 선정하고, 우수작 출품 직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전달할 예정이다.

## 최우수 모범 공무원(2021년)



대구구치소 교위 김환중

김환중 교위는 1998년에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약 23년간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수용 관리에 힘쓰는 등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오후 12시 경 격리 거실에서 수용자가 에어컨 전깃줄을 목에 감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수용 관리 팀장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해 수용자 제지 및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

※ 2021년 12월 대구지방교정청 모범공무원에도 선정됨

## 모범 공무원(2021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교위 설평화

설평화 교위는 1994년에 임용된 후 약 28년간 재직하며 보안 일선에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징벌 수용동 근무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근무 자세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문제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상담하면서 심적 안정을 유도해 원만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교육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천안교도소 교위 오강환

오강환 교위는 중간 처우 대상자의 처우 연속성 유지 및 효율적 수용 처우를 위한 수용 계획을 수립해 중간 처우 대상자의 원활한 수용 관리에 기여했다. 더불어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감호자를 천안교도소로 수용하는 데 있어 각 부서 및 주요 담당자들과 협의해 감호자의 처우 기본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전면적 자치 처우 실시 및 배려에 따른 내부적 규제 마련으로 안정된 감호 수용자 관리에 기여했다.



광주교도소 전문경력관 백정석

백정석 전문경력관은 1999년 임용된 후 22년간 직업훈련과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 교사로서 직업훈련생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 직업훈련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을 실시한 결과 2021 광주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1명)과 은상(1명),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은상(1명) 수상을 배출했다. 그는 또 직원들과의 화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법무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 수용자와 가족 간의 비대면 만남, '화상 가족접견' 도입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전면 중단에 따른 대체 처우 마련 필요
- 수용자와 가족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가족의 유대관계 유지·회복 도모

#### 추진내용

- 가족접견을 비대면 운영 프로그램으로 선정
- 수용자와 가족 간 화상 가족접견 도입
- 가족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화상 접견 기회 제공

#### 주요성과

- 교정행정 만족도 제고 및 수용자 사회 복귀 기반 마련
- 수용자 가족 교정기관 방문 시간 및 비용 절감

### 수용자 작업장려금 활용, 국민연금 가입 추진



#### 추진배경

- 작업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관 방식을 단순 보관에서 경제적 자산 형성으로 전환
-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등 미래를 준비해 실질적인 재범 방지 도모

#### 추진내용

-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 수용자는 국민연금 유형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
- 교정기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주요성과

- 노후 생활 정착금 마련으로 범죄 유혹 탈피 및 재활 의지 고양
- 작업을 통한 경제적 자산 형성으로 안정되고 보람 있는 수용 생활 도모
- 작업 근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작업 독려를 통한 교도 작업 활성화
- 미지급 작업장려금 해소로 교특회계 재정건전성 확보

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kidc.eprivacy.go.kr**

아이디

\*\*\*\*\*

Warning icon



# 월간 <교정>과 함께할 교정공무원을 찾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월간 <교정>은 교정현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정공무원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콘텐츠로 가득 채워질 예정입니다.  
교정공무원들의 참여를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는  
코너 등 새로운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 교정공무원 누구나  
**참여 콘텐츠**

## 새로운 만남

교정공무원이 선택한  
명사를 만나 그들의 삶을  
엿봅니다.  
유형 : 설문 조사



## 전문가에게 묻다

교정공무원의 다양한  
고민을 전문가 상담으로  
해결합니다.  
유형 : 직접 참여  
예시 :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전 분야

## 취미의 공유

교정공무원 동호회 소개  
및 배우고 싶은 취미를  
찾아봅니다.  
유형 : 직접 참여



## 나도 패션왕

헤어·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유형 : 직접 참여



## 참여 방법

### 신규 콘텐츠에 참여해 주세요!

#### 방법 1

메일(correct2015@naver.com)로 참여를  
원하는 신규 콘텐츠와 인적사항 등 발송

#### 방법 2

QR코드 스캔 후 독자 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고 싶은 신규 콘텐츠와 설문조사 진행

